

원주시역사박물관 기획전  
그때를 아시나요 2

아펜젤러, 존스 선교사  
원주에 가다

원주시역사박물관 기획전  
그때를 아시나요 2

아펜젤러, 존스 선교사  
원주에 가다



원주시역사박물관



원주시기독교연합회

원주시역사박물관 기획전  
그때를 아시나요 2



아펜젤러, 존스 선교사  
원주에 가다



원주시역사박물관



원주시기독교연합회



발 간 등 록 번 호

72-4190000-000281-01



원주시역사박물관 기획사진전

그때를 아시나요 2



# 아펜젤러, 존스 선교사 원주에 가다



## 일러두기

1. 이 도록은 원주시역사박물관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한 기획사진전 [그때를 아시나요 2] <아펜젤러, 존스 선교사 원주에 가다> 도록이다.
2. 이 도록은 원주시역사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유물(사진엽서)과 원주시기독교연합회를 통해 확보한 선교 역사 관련 사진 등을 수록하였다.
3. 원주시기독교연합회를 통해 확보된 사진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GCAH of UMC(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보스턴미술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일산사료전시관의 도움을 받아 수록되었다.
4. 사진 해제는 문헌 자료와 관련 학술 논고를 바탕으로 원주시역사박물관과 원주시기독교연합회가 진행하였다.



원주시역사박물관



원주시기독교연합회

# 발 간 사

원주시역사박물관은 원주의 장소, 시간,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 옛 원주의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매년 기획전전 [그때를 아시나요]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전전은 원주시 선교117주년을 기념하여 원주 땅에 처음으로 방문한 아펜젤러와 존스 선교사와 그 이후 원주를 방문한 선교사들이 남긴 사진 자료를 공개합니다.

원주를 처음 방문한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존스는 1889년 8월 16일 서울을 출발하여 양평을 거쳐 원주를 지나 부산까지 간 일정을 상세히 기록한 일기를 남겼습니다. 당시 원주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을 직접 보기 위해 문을 열고 쏟아져 나와 입을 벌리고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고 존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펜젤러와 존스는 강원감영 객사에서 묵었으며 그들이 만난 목사와 관찰사의 옷차림, 생김새에 대하여도 상세히 기록해놓았습니다. 비록 이 당시 사진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들의 기록을 통해 일제강점기 전 강원감영의 모습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펜젤러와 존스 이후 원주를 방문한 선교사들이 거리와 마을을 거닐며 순간을 포착하고 기록한 사진들 중 1900년대 초 원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100여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가집에서 근대 건축물로 발전한 원주읍교회의 모습, 강원도 최초의 유치원인 정신유치원의 모습, 서미감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 등의 다양한 사진들을 통해 일제강점기 시절의 선교 역사뿐만 아니라 원주의 옛 모습들, 원주 사람들의 생활상 등을 생생하게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가 있기까지 소중한 자료와 협조를 해주신 원주시기독교연합회,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원주시역사박물관장



## 축 사

한 역사가는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자,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닌, 그것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기록하는 역사가의 시선을 거친 '해석으로서의 역사'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세상의 역사'란 그것을 기록하고 해석한 사람, 혹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는 특별히 '선교사역'의 역사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그 역사의 주체가 특정할 수 없는 다수나, 규격화 할 수 없는 산발적인 사건들의 집합이 아닌,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는 단순히 'history'를 넘어선 'his story', 즉 'God's story'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1889년 8월 19일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존스 선교사를 원주에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곳 원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신지 어느덧 133년이 되었습니다. 두 명의 선교사가 순종의 삶을 살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기에 이 원주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렇게나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에서 접하게 되는 화보들은 단순한 사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확인이며, 세상을 향한 증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한 자들의 놀라움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선교사역을 기억하지만, 이 화보집에 기록된 매 순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원주에 지난 133년 동안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이 화보집을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며 200주년에 이를 '원주선교역사'를 위해 한 마음으로 뜨겁게 중보하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33년에 이르는 원주선교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주시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놀라운 사역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여정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축사의 글을 갈무리합니다.

원주기독교연합회  
회장 정덕균 목사

## 축 사

1866년 9월 5일, 제너럴셔먼호, 평양 대동강 백사장, 성경책 한 권, 스물일곱 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1840.9.7.~1866.9.5.) 선교사 그가 관군에게 외친 한마디는 “예수! 예수! 예수 믿으시오!”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었고, 이후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낯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선교사들의 파란 눈과 노랑머리에 흰칠한 키 등에서 느껴지는 외모를 보면서 '이건 뭐지?'하였고, 서양 선교사들 또한 갓을 쓴 한복차림의 복장에서부터 너무 생소한 문화들을 대하며 삶의 모습을 바꾸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로의 다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가 부흥한 것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땅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고백을 해 봅니다.

한국 교회사 책 몇 장을 넘기다 보면 초기 의료선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선교의 장애를 가장 효과적으로 견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단연 '의료선교'를 꼽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마음을 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어쩌면 의료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의료선교는 궁극적으로 복음 증거를 위한 방편이었으나 한국 의학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료(施療)와 시약(施藥)을 통한 육체적·정신적·심리적 아픔의 치료와 재활·재생의 길 구현과 의학교육과 의료인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의 세 기둥이었던 교회·학교·병원 가운데 초기 단계에서는 병원 사업이 그 선도적인 '쟁기'의 역할, 곧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 도구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선교 사업은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의 궁중으로부터 시골 오지마을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해 갔습니다.

의료를 통한 복음 선교활동은 어떠한 강압이나 방해로 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고, 선교사들의 활동력이 필요한 곳에 잘 자리잡혀갔기 때문에 그 결과 의료선교는 기독교 선교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원주시 선교 133년을 맞아 1889년 원주에 방문한 아펜젤러와 존스 선교사 소개 및 일제강점기 원주에 설립된 교회와 의료·교육 활동 재조명을 통하여 원주 땅을 위한 헌신된 섬김이들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 한 부분에 원주 의료선교를 시작한 '서미감병원'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이어져 옴을 감사히 여깁니다. 원주시역사박물관 기획사진전 [그때를 아시나요 2]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사진 속에 숨겨진 선교사들의 영혼 사랑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연세의료원  
백순구 원장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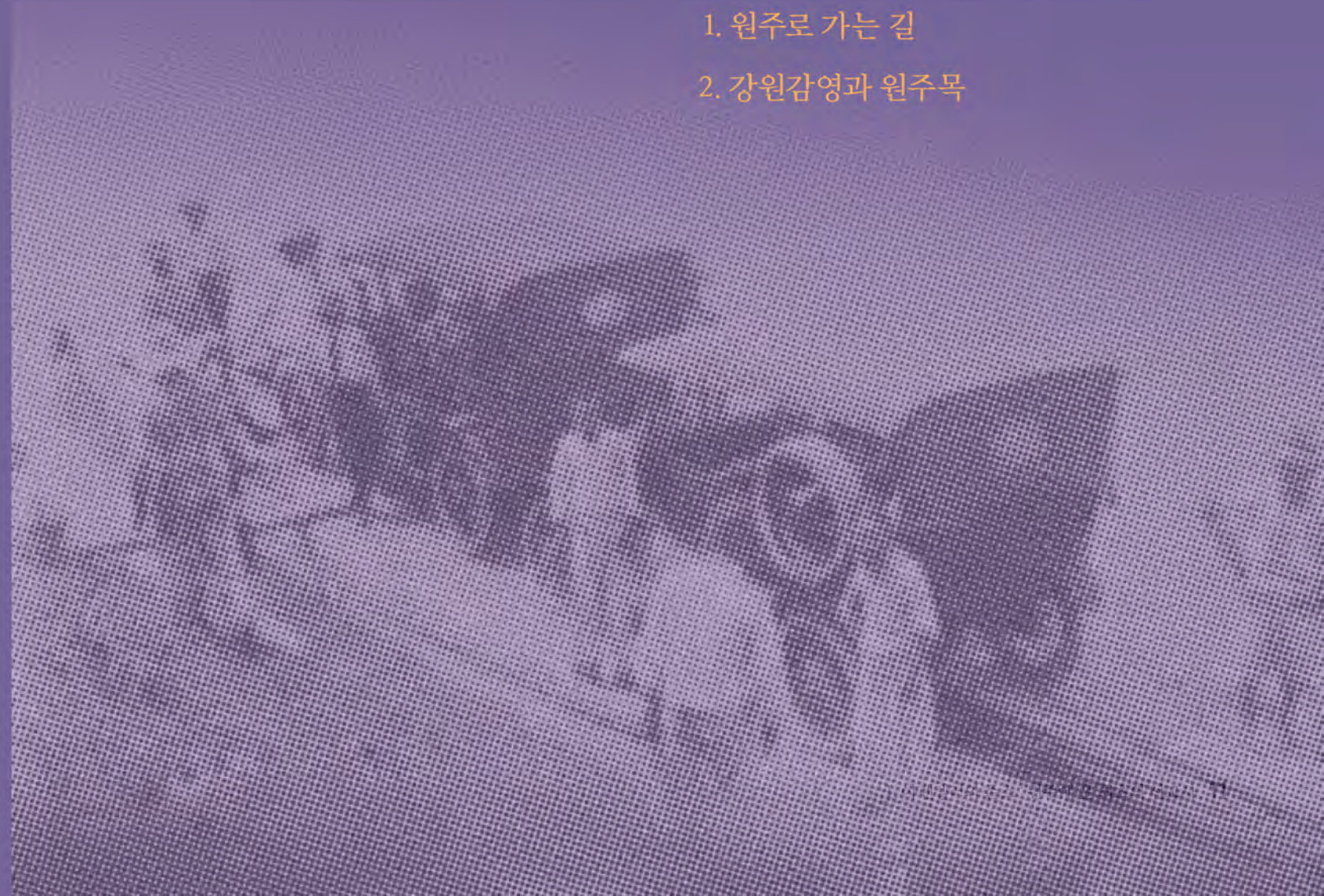
<b><u>I. 아펜젤러와 존스 : 원주에 온 최초의 선교사</u></b>	<b>11</b>
1. 원주로 가는 길	12
2. 강원감영과 원주목	17
<b><u>II. 원주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u></b>	<b>29</b>
1. 선교와 교회 설립	30
2. 서미감병원과 의료 활동	49
3. 학교 설립과 교육 활동	63
<b><u>III. 선교사의 눈을 통해 바라본 100년 전 원주</u></b>	<b>75</b>
1. 원주 풍경	76
2. 원주 사람들	85
<b><u>IV. 부록</u></b>	<b>101</b>
논고 1. 원주에 복음을 전한 첫 사람들 (이진만 선교사)	102
논고 2. 원주지방 첫 근대병원 서미감병원 (안성구 일산사료전시관장)	113
논고 3. 원주지방 최초의 교회 (안성구 명예교수, 윤종원 부장)	119
논고 4. 선교사들이 기록한 원주 이야기 (윤종원 장로)	129



# I

## 아펜젤러와 존스 : 원주에 온 최초의 선교사

1. 원주로 가는 길
2. 강원감영과 원주목





# 1. 원주로 가는 길

## [원주에 온 최초의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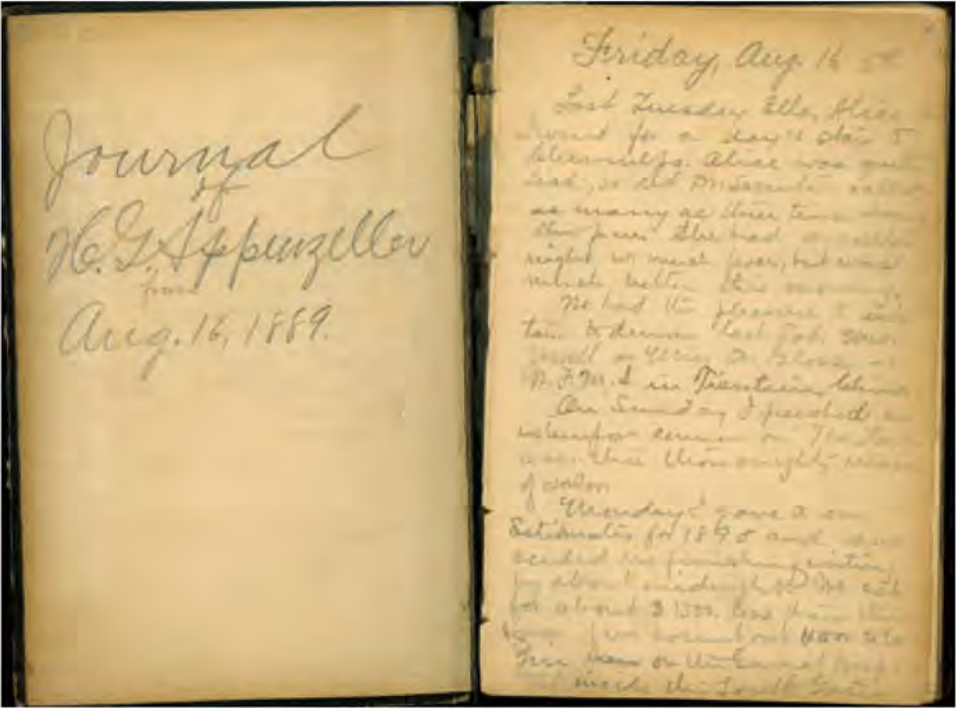
아펜젤러 선교사  
(Henry Gerhard Appenzeller)

아펜젤러는 감리교회 첫 번째 주재선교사로 파송되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 오후 3시에 장로교회 첫 번째 주재선교사 언더우드와 함께 제물포에 도착했다. 1889년 8월 19일 아펜젤러 선교사는 존스 선교사와 함께 원주를 방문했다. 그는 도착 첫날 저녁 원주목사 이철우의 호의로 환영을 받았으며 강원감영 객사에서 원주에서의 첫날을 맞았고, 8월 20일 강원감영 선화당으로 강원도 관찰사 정태호를 예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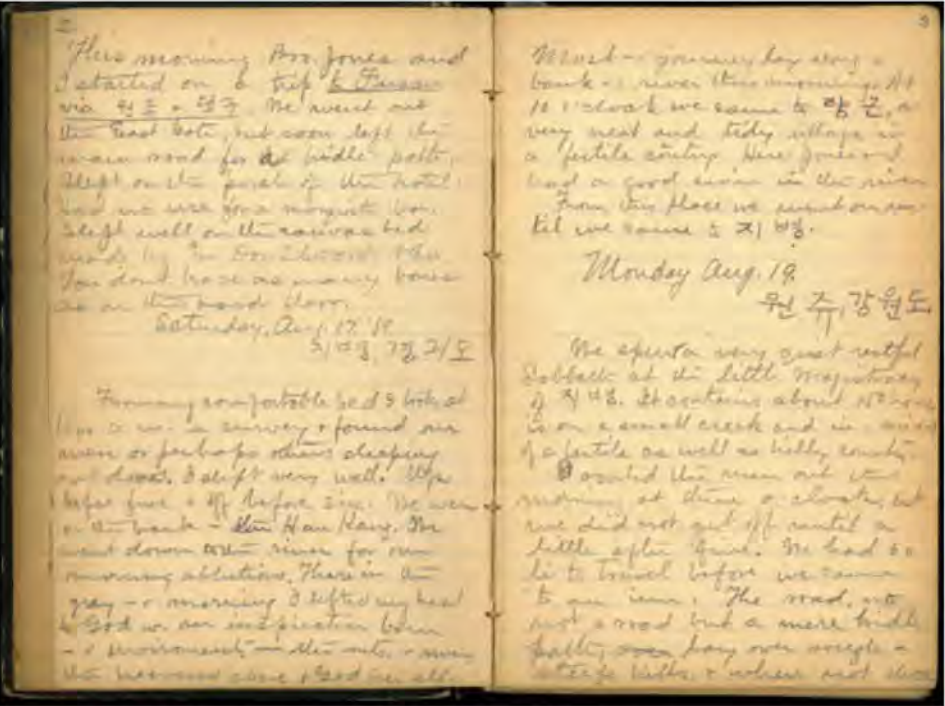


존스 선교사  
(George Heber Jones)

원주지방을 방문하기 1년전 만20세 때인 1888년 5월 17일 한국에 도착한 존스 선교사에게는 한국선교 책임자 아펜젤러와 함께 하는 첫 번째 여행이었다. 그가 기록한 순행일기에 나오는 정태호 관찰사와의 면담 내용을 통해 당시 강원감영의 모습과 원주 사람들의 살아가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또한 패기 있는 젊은 선교사로서의 선교에 대한 각오를 볼 수 있다.



1889년 아펜젤러 남부순행 일기 원본 표지  
아펜젤러가 손 글씨로 기록한 남부순행 일기 원본은 현재 배재학당 박물관에 있다. 이 일기책에는 아펜젤러가 서울을 출발하기 전 중국 텐진 여선교회를 다녀온 이야기부터 그가 존스 선교사와 함께 서울을 출발해 서울 → 양평 → 지평 → 원주 → 충주 → 문경 → 상주 → 대구 → 부산을 거쳐 서울로 귀경해 서울에서 열린 1889년 한국선교부 연례회의 감리사 보고서 초안까지 실려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



1889년 8월 17일, 19일 자 아펜젤러 남부순행 일기 원본, 영인본.  
왼쪽 페이지에는 '1889년 8월 17일 토요일 지평(지평), 경기도'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19일 월요일 원주(원주), 강원도'라고 기록돼 있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





#### 원주로 오는길 신작로

산이 높고 강물이 깊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던 원주지방으로 이천-강릉 2등도로 새로운 길(신작로)의 개설은 한일합병 이후 1912년~1918년까지 건설했다. 이 사진은 루이스 감독과 노블 감리사가 1914년 봄 원주에서 열린 원주지방회에 참석하기 위해 신작로를 이용해 오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촬영 장소는 여주 강천에서 문막으로 이어지는 샛갯봉 자락 부평리 부근이다.



#### 원주로 오는 길에서 보이는 풍경

1910년대 원주지방을 방문한 선교사 일행이 촬영한 사진으로 당시의 원주 인근 촌락과 논과 밭 그리고 묘지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 보이는 계단식 논의 모습이 정겹게 다가온다.



#### 마을 뒷골목 풍경

선교사 일행이 원주로 오는 길 주위에서 본 마을의 모습이다. 정비되지 않은 뒷골목길 모습과 초가집 풍경이 당시 우리 선조들의 팍팍했던 생활 환경을 보여준다.

#### 원주 외곽 마을 풍경

모리스 선교사가 원주 인근 마을을 방문해 전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 설명에 '도심과 떨어진 외딴 마을 운동'이라 쓰여 있어 이 마을이 1914년 원주군 호저면 운동(雲洞)에 세워진 운동교회 인근 마을로 1920년대 초기 촬영된 것이다.







논밭 풍경

원주로 가는 길에 보이던 마을과 논밭 풍경이 담긴 사진으로 1920년대 초기 촬영된 것이다.



원주 읍내 풍경

## [원주로 가는 길 - 물길을 따라, 흥원창]

아펜젤러와 존스는 서울을 출발하여 양평을 지나 솔치 고개를 넘어오는 육로를 따라 원주에 도착하였다. 당시 서울에서 원주로 오는 길은 육로도 있었지만, 섬강을 따라 흥원창으로 가는 물길도 있었다. 실제로 십여 년 뒤 원주에 도착한 모리스와 빈튼은 포드자동차를 싣고 여주나루를 출발에 흥원창을 통해 원주에 도착하였다.



한임강명승도권(漢臨江名勝圖卷) 정수영(鄭遂榮, 1743-1831) 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96~1797년에 걸쳐 한강과 임진강 일대를 유람하면서 본 경치를 그린 그림이다. 1,575.6cm에 달하는 긴 두루마리 그림이나, 한 번의 여정을 이어 그린 것이 아니라 유람중에 만난 인상적인 경치 26장면이 때로는 짙고 짙하게 여러 번, 때로는 긴 화면으로 자유롭게 그려져 있다. 흥원창(興元倉)은 고려 및 조선 시대에 남한강 수계(水系)인 현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지역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이다. 조창은 전국 각 지방에서 조세의 명목으로 거둔 미곡을 한양에 있는 경창(京倉)으로 운송하기 위해, 연해나 하천의 포구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국영 창고의 총칭이다.

여주강 나루터에서 원주로 출발하기 전 모습







포드 자동차를 싣고 여주강을 건너는  
모리스 선교사 일행



인력거를 나룻배에 싣고 있는 장면



여주나루 포드 자동차 이송 장면

나룻배 근처 나무 짐을 진 지게꾼



릭사(인력거)를 실은 섬강 나룻배



짐을 싣고 섬강을 건너는 나룻배





## [선교사들이 기록한 100년 전 조선의 모습]



1883년 화재 이전 경복궁 근정전

1883년 미국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이 조선 방문중 촬영한 근정전 모습. 현재 확인된 경복궁 사진 가운데 촬영연도가 확인된 것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촬영된 것이다. ©Museum of Fine Arts, Boston



1884년 고종

미국인 퍼시벌 로웰이 1884년 촬영한 고종 사진. 윤치호의 일기에는 “1884년 3월 13일 로웰 및 사서기와 예궐하여 어진을 촬영하다.”라고 기록되어 이 사진이 1884년에 촬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진의 배경은 창덕궁 농수정(農繡亭)이다. ©Museum of Fine Arts, Boston

20 아펜젤러, 존스 선교사 원주에 가다



1890년대 광화문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과 광화문 앞에 있던 현재 서울의 마스코트인 해태석상 2마리가 보인다. 광화문 뒤로 보이는 산은 100년전 나무가 많지 않았던 북악산의 모습이다.



대한국 소년들 동전치기

개화 초기까지 조선 소년들의 머리는 이렇게 어깨 위로 늘어뜨린 땡기머리였다. 이 사진은 소년들이 모여 동전치기 하는 놀이모습이다.



개화기 가마 모습



왕궁 근무자

겨울 복장으로 보인다.



1897년 숭례문

숭례문은 조선시대 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으로, 일명 남대문(南大門)이라고도 하는데, 서울 도성의 4대문 가운데 남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숭례문은 1396년(태조 5) 축조된 서울도성의 정문으로, 1398년(태조 7) 2월에 준공되었다. 남대문 앞에 보이는 초가집들은 무허가 임시 상가 시설로 국왕의 행차 시에는 모두 철거된다.



1890년대 마포 나룻터

외지인들이 서울로 오려면 거쳐야 했던 대표적인 나룻터이다. 선교사들이 제물포에서 오려면 배를 이용해 마포 나룻터로 오기도 하고 제물포에서 말이나 가마를 타고 한강을 건너올 때 주로 마포 나룻터에 도착해 서울 도심으로 이동했다.



한강 용산나루



선교사들이 이용하던 배



1889년 삼문출판소

출판사 겸 인쇄소였던 삼문출판소의 모습이다.





1898년 예배당 모습

남녀가 차양으로 구분된 채 예배를 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898년 예배당 모습

좌측 여성석 / 우측 남성석



## 2. 강원감영과 원주목



치악산을 향해 바라본 원주

존스는 남부순행일기에서 “원주는 성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장조차도 없었다. 그 뒤로는 마치 말편자 모양의 산이 둘러서 있었고 보라색 석양이 원주 상공 1,600피트(약 488m) 위로 들어 올려져 있었다.”라고 표현했다.



나무 함지박과 거리의 원주 사람들

아펜젤러와 존스를 본 사람들은 “원주를 방문한 첫 번째 서양 사람”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굉장한 호기심을 보였다.”고 아펜젤러는 일기 속에 서술했다.





일제강점기 이전 강원감영

포정루의 모습이다. 25페이지와 비교했을 때 원주 수비대 간판이 아직 걸리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감영 담장과 외부

## [원주시역사박물관 소장 유물]



조선 강원도 원주수비대 영문 전경 엽서  
(朝鮮 江原道 原州守備隊 營門 全景 葉書)

‘강원감영 문루’ 사진엽서는 ‘원주수비대(原州守備隊)’라고 쓴 입간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문 왼쪽에 보초를 서고 있는 일본 헌병과 문루 밖으로 행진하는 무장 군인들의 모습도 담겨 있다. 강원감영은 1907년 일본에 의해 군대가 해산된 후 ‘원주 헌병수비대’가 주둔하였다.



조선 강원도 원주수비대 사무실 전경 엽서(朝鮮 江原道 原州守備隊 事務室 全景 葉書)

‘조선 강원도 원주 수비대 사무실 광경’이란 제목으로 ‘선화당(宣化堂)’ 전경을 담은 사진엽서로, 단층기와에 유리문이 달린 관청(官廳)의 모습과 7명의 일본군이 함께 실려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지역에 수비대를 두어 치안을 맡았다.





원주우편국/헌병분대/원주기독교회/원주재판소 엽서 (原州郵便局,憲兵分隊,原州基督教會,原州裁判所 葉書)

- ① 원주우편국-민공호 의병장이 1907년 의병봉기 후 일제의 통치기관인 우편취급소, 군아, 경찰분견소를 습격하여 원주읍을 장악하였다.
- ② 원주헌병분대-원주재판소 부근에 위치하였는데, 현재 KBS가 위치한 자리이다.
- ③ 원주기독교회-1913년에 개원한 강원 남부권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서미감병원(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기독교회가 보인다.
- ④ 원주재판소-옛 원주목(原州牧) 관아 건물로, 현재 KBS가 위치한 자리이다.



강원도 원주읍내 전경 엽서(江原道 原州邑內 全景 葉書)

지금의 원주 남산 위치에서 시내방향으로 촬영한 것으로, 강원감영 선화당과 포정루·객사가 보인다.



조선 강원도 원주읍내 전경 엽서(朝鮮 江原道 原州邑內 全景 葉書)

지금의 원주 남산 위치에서 봉산동 방향으로 촬영한 것으로, 원주재판소로 사용하던 관아 건물과 원주헌병분대로 사용하던 건물이 보인다. 봉산동 방향으로 원주교(原州橋)가 보인다. 이 원주교는 1913(대정 2년)에 준공된 원주교가 아니고, 1922년 홍수로 유실되어 1923년 새로 지은 다리로 보인다.





조선 강원도 원주읍내 전경 엽서(朝鮮 江原道 原州邑內 全景 葉書)

지금의 원주 남산 위치에서 가톨릭센터 방향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은 1913년 건축된 원동성당이다. 원동성당의 현재 건물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전소(全燒)된 후, 1954년 재건축되었다.

## II

### 원주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1. 선교와 교회 설립
2. 서미감병원과 의료 활동
3. 학교 설립과 교육 활동



# 1. 선교와 교회 설립

[원주 땅을 밟은 선교사]



아펜젤러(HG Appenzeller)



존스(GH Jones)



무스(JR Moose)



콜리어(CT Collyer)



클라크(CA Clark)



웰본(AG Welbon)



데밍(CS Deming)



노블(WA Noble)



앤더슨(AG Anderson)



피터슨(HF Peterson)



레퍼트(RR Reppert)



힐만(MR Hillman)



모리스(CD Morris)



스네블리(GE Snavelly)



칼슨(CF Carlson)



맥마니스(SF Mcmanis)



젠센(AK Jensen)



나에시덕(EJ Laird)



버크홀더(MO Burckho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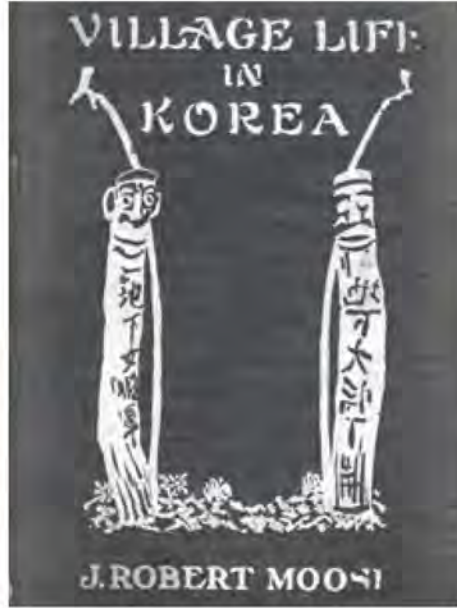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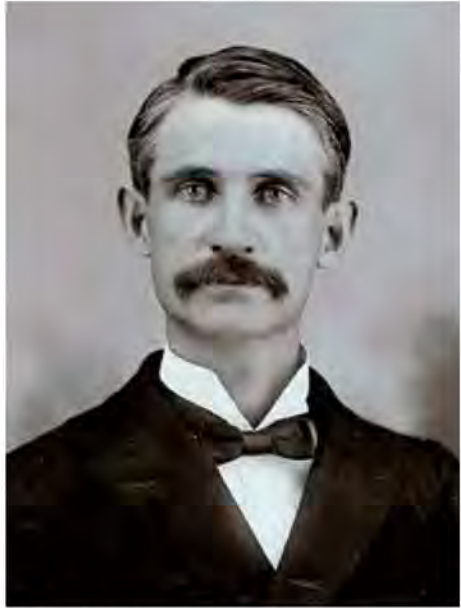
무어(SM Moore)



## 선교 지역 분할 협정 (교계예양敎界禮讓)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교계예양(Comity of missions)이 1892년 5월 23일에 추진(미국 북감리회·북장로회)되었으나, 각 교파에서 공식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1909년 9월, YMCA회관에서 6개 교파의 협정 조인식이 이루어 졌으며 1939년까지 지속되었다(미국 남·북감리회, 미국 남·북장로회,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장로회).





무스 선교사의 시골 체험기  
"Village life in Korea"(1909년 8월)

무스(JR Moose, 1864~1928)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는 1899년 내한 하였다. 1900년에 춘천으로 파송되었으며, 1905년 원주읍교회를 설립하였다(원주읍 상동리 115번지). 1906년 콜리어(CT Collyer) 선교사가 영서 지역 선교를 담당하였다.



해리스(M. C. Harris, 1846~1921)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는 1904년에 한국·일본 선교 감독(Bishop)으로 임명되었다. 조선 연회 초대~5대(1908~1912) / 9대 회장(1916)을 역임하였다. 1909년 원주 지역을 북장로회로부터 이관 받았으며, 선교기지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선교를 실시하였다.



① 웰본(A. G. Welbon, 1866~1928)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는 1900년에 한국으로 파송되었다. 교계예양에 의해 원주 지역 선교를 클라크(CA Clark, 1878~1961) 선교사와 함께 1907~1909년까지 담당하였다. 아서 웰본은 1897년 매캘러스터 대학을 졸업 후 1900년 4월 34세의 나이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졸업과 동시에 9월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었다. 그는 1907~1909년까지 북장로교회 원주선교부 관리자로 사역했으며 원주선교부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나 1909년 교계예양으로 북장로교회 선교부 부지를 북감리교회 넘기고 안동선교부를 개척해 1928년 소천할 때까지 사역했다.

② 웰본 자녀들(헨리, 바바라)과 가마를 타고 가는 새디 웰본 부인, 1907년 11월

웰본 선교사보다 1년 일찍 한국에 온 새디 선교사는 1901년 9월 웰본 선교사와 결혼한 후 웰본 선교사를 도와 많은 사역을 했고, 특별히 교육사역에 많은 성과를 냈다.



협성신학교를 졸업한 방기순 목사는 제10회 조선 연회에서 원주 지방 목사로 파송되었다. 원주읍교회 제4대(1917~1918년) 및 6대(1920~1924년) 담임자로 사역하였다. 일제는 3.1운동 참여를 빌미로 조운여 전도사와 함께 투옥하였다.(1920년대 중반, 모리스 사택에서 신도와 함께 촬영한 사진).





1913년에 건립된 앤더슨 사택 현관에서 1918년에 촬영한 모리스 가족 사진[부인(Louis Ogilvy), 장녀(Charlotte), 차녀(Muriel)].



모리스 선교사 사택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서양식 벽돌 건물이다. 건축 면적은 113㎡, 높이 6.44m이며 1918년에 완공되었다. 2017년 등록문화재 701호로 지정되었다(안성구, 윤종원 자료 발굴). 의료·복음 선교에 관한 자료 전 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 모리스(C. D. Morris, 1869~1927)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는 1900년에 내한하였다. 1916년까지 연변·평양 지방에서 사역하였고, 1917~1927년까지 원주·강릉·여주·이천 지방 감리사로 사역하였다. 1927년 1월 위암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별세하였고, 묘소는 양화진에 있다. 부인 오길비(Louis Ogilvy)는 1903년 모리스와 결혼하였고, 남편 사망 후에 1940년까지 정신유치원·기독교여자관 및 원주읍교회 목사 서리로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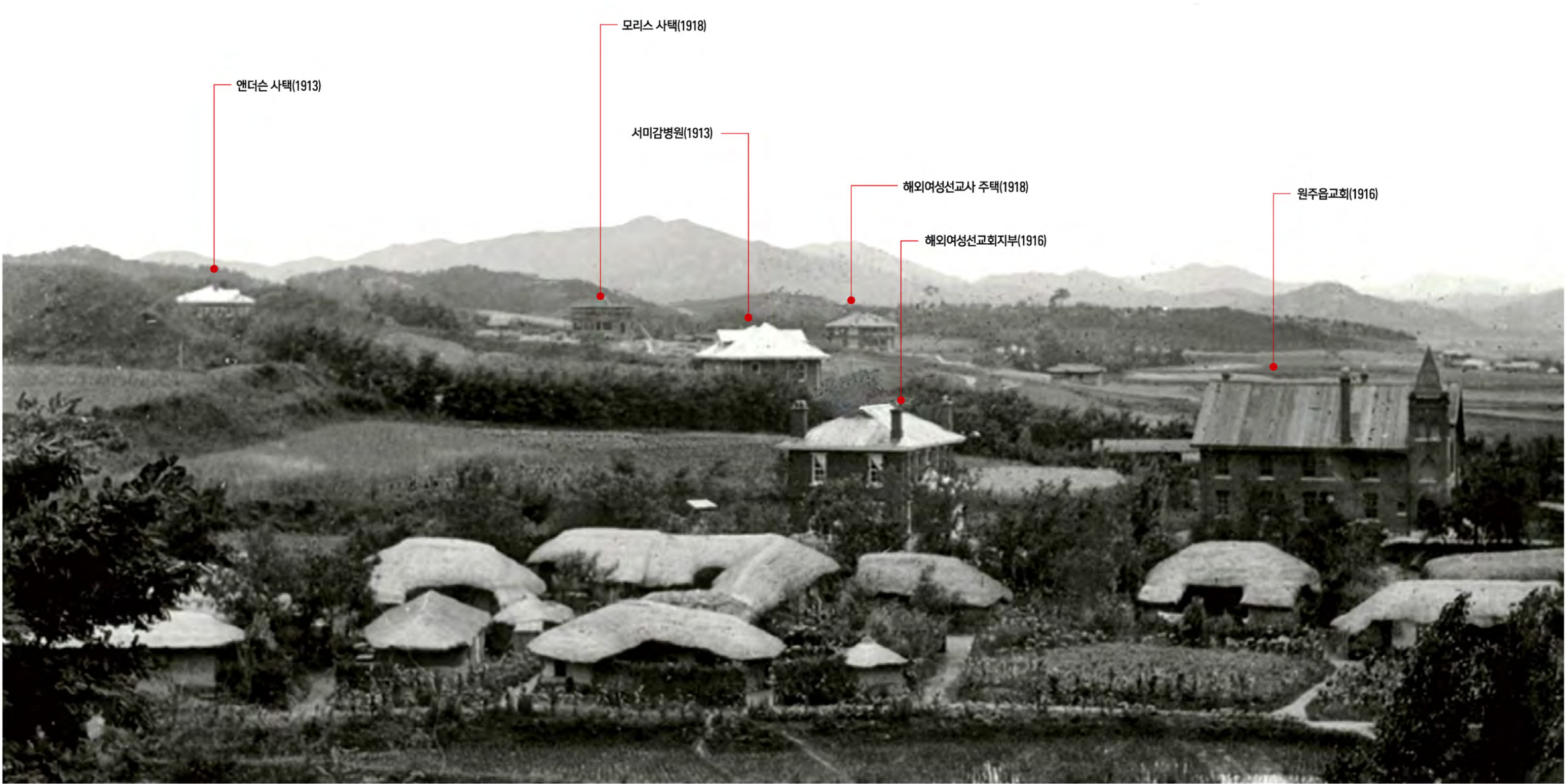


미국 북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박원백 목사(학습 1908년, 입회 1910년, 장로목사 1911년)는 1911~1916년까지 원주 지방 초대 감리사로 시무하였다.



1906~1940년까지 한국에서 사역한 스내블리(G. E. Snavelly, 미 북감리회여선교회) 선교사는 원주·강릉(1918년), 해주·이천(1928년) 등에서 근무하였다. 당나귀 옆에선 한국인은 조사(매서인)이고, 짐을 실은 소 고삐를 쥔 사람은 짐꾼이다.









1914년 원주지역 선교사와 목회자들(왼쪽부터 박원백 감리사, 레퍼트 선교사, 노블 원주지방 선교관리 선교사, 앤더슨 의사, 동석기 순행 전도사, 의자에 앉아 있는 루이스 감독, 앞줄 레퍼트·앤더슨 가족).



루이스 감독과 노블 박사 일행

원주로 가는 오르막 길에서 인력거에서 내려 인력거 운반인을 배려하는 루이스 감독과 노블 박사 일행. 이 사진은 1914년 봄 원주에서 열린 원주지방회에 참석하러 오면서 찍은 광경이다.



루이스 감독 강건너지(1914년)

여주 나루터에서 원주로 향하는 루이스.

## [원주읍교회]



원주읍교회 예배 처소에 모인 교인들의 모습(1907년). - 어린이, 청년, 부녀자, 장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 원주제일감리교회 110년사



원주읍교회·여선교회지부와 원주읍내 모습



원주읍교회 비오는 날 예배후 모습



임진국 목사와 신도들(1949년 원주읍교회 파이프 오르간 앞에서 부활절 세례 문답식 후 기념 촬영).



1950년 6.25 이전 원주읍교회 모습



6.25 전쟁후 원주교회 텐트교회





앤더슨 선교사의 노력과 원주읍교회 교인들의 협조에 의해 1916년 서양식 건물의 원주읍교회가 세워졌다.



원주읍교회(1910년대 후반 정신유치원 원생).



원주읍교회와 어선교부(1918).



원주읍교회(1933년 대사경회).





윤성렬목사 부부



윤성렬목사 기사(1915년 기독교신보 창간호)

## [만종교회]



만종교회 설립자 박극렬



데밍, 하디 선교사의 금강산 관광을 안내하는 윤성렬 전도사. 우측 사진은 은퇴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교도소 전도활동을 하던 노년의 윤성렬 목사(원주읍교회 2대 담임) 모습.



만종교회 설립자 박극렬 가족



## [문막교회]



1960년대 만종감리교회

만종교회는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14년에 창립되었다. 일제강점기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운동교회(雲洞教會)라 불렸다.



만종교회 신축 후 현재 모습

언덕 위에 세워진 만종교회는 그 진입로를 골고다로 올라가는 언덕의 의미를 부여하여 완만한 곡선으로 건축되었다. 언덕을 깎지 않고 예배당을 지하로 배치했지만 채광을 하여 예배실 내부에서는 마치 지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빛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전문적인 건축가들의 만종교회 건물에 대한 건축학적 평가는 후한 편이다. 만종교회 건축은 압도적인 부와 위세를 형상화한 과시적 외형을 축소하고 종교정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투박한 노출 콘크리트 역시 소박한 우리 조상의 정신세계를 본받았고, 공간의 배치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편의성과 더불어 권위주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시골장터 같은 푸근함을 느끼게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1대 이계삼 전도사(재임 : 1905~1909)

### 1913~1916년경 문막교회 첫 번째 예배당(앤더슨 선교사 촬영)

사진 중앙에 보이는 흰색 장대는 개화기 예배당 건물임을 나타내는 십자기를 달았던 깃대이다. 십자기는 외부인들의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표식이었다. 앤더슨 선교사는 문막교회를 “Methodist Church at Moommark”이라고 표기했다. 1908년 사경회를 개최했던 왓볼드 선교사는 그의 사경회 일기에 당시 문막을 “Mun-mak”이라 표기했다. 1916년 원주지방으로 파송된 힐만(Mary R. Hillman) 선교사는 문막을 “Moonmak”이라고 표기했고, 1928년 원주선교부에서 활동하던 맥마니스 선교사 역시 그의 선교편지에서 문막을 “Moonmak”으로 썼다. 2021년 현재 문막교회의 영문표기는 “MUNMAK METHODIST CHURCH”로 하고 있다.







문막교회 2차 예배당과 담임 목회자 모습

융희원년(隆熙元年, 1907)에 설립된 사립 문성학교(文成學校)가 대정원년(大正元年, 1912)에 문정학교(文正學校)라 개칭, 후신으로 대정6년(1917) 3월 23일에 문막공립보통학교로 승격 3학급이 편성되고, 제1대 교장으로 일본인 小原이 부임하였다. 문정학교가 사용하던 10칸 건물을 사용하던 문막공립보통학교는 이 학교 건물을 문막교회에 165원에 매각하고 1918년 3월 31일 문막리 237번지로 신축하여 이전했다.



문막교회 3차 예배당

윤태현 목사 재임 시 총 공사비 878원 80전을 들여 함석제로 지은 3차 예배당은 1934년 4월 20일 기공하여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5월 25일 준공했고, 1935년 3월 31일 오전 11시에 신홍식 감리사의 주례로 예배당 봉헌식을 거행했다.



문막교회 4차 예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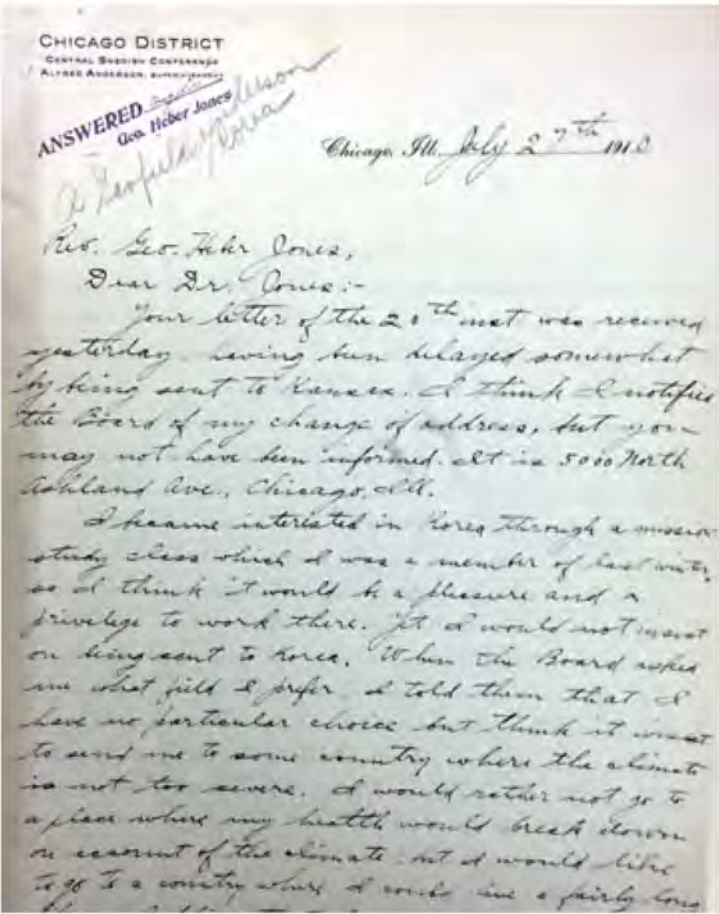
6.25 전쟁으로 허물어진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 1952년 10월 교회부지(문막리 546번지)를 매입하고 4차 성전 45평을 이전 신축 봉헌했다. 당시 담임을 했던 송성준 목사의 회고록에 의하면 교회 건축 착수 때에 약간의 예금과 쌀 15가마가 전부였다. 부족한 비용은 송 목사가 본부에 올라가 때를 쓰며 류형기 감독에게 부탁해 30만 원을 조달했고, 이후 류 감독이 원주에 가는 길에 문막교회에 들러 20만 원을 주어 사택을 지을 수 있었다. 당시 자재비를 제외한 모든 인력은 교인들 30여 명이 나와서 성도들 힘으로 60평 목조 교회당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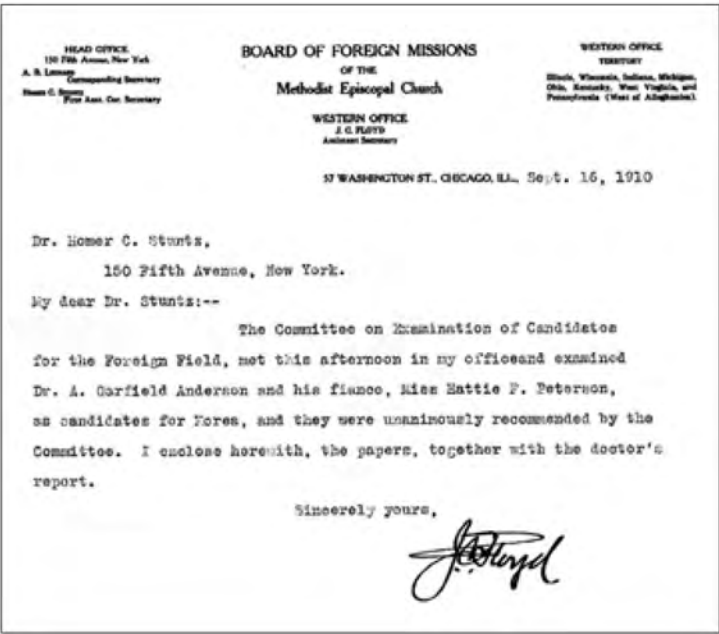


성결교회는 1907년 5월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김상준, 정빈)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1933년 6월 원주군 본부면 상동리에 이문현 목사가 초가 2칸에서 예배를 시작하여 원주 지역 성결교회 문을 열었다. 사진은 1937년 말 봉산동 왕비석 골목 7칸 초가 교회 모습(차장선 목사).

2. 서미감병원과 의료 활동



앤더슨 선교사 자필지원서  
미국 북감리회 존스(G. H. Jones) 선교사에게 보낸 선교사 지원에 관한 앤더슨(A. G. Anderson) 자필 편지(1910. 7. 27).



앤더슨(A. G. Anderson)의 한국 파송 선교사 후보 선정에 관한 해외 선교부 공문(1910. 9. 16)





1913년 11월 완공된 서미감병원

이곳에서 10여 리 인근에 45개의 미전도 마을이 있다고 사진 설명에 나와 있다.



1913년 11월 완공된 서미감병원

서미감병원은 읍내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구릉 위에 세워졌다.



1913년 완공한 앤더슨 선교사 사택과 서미감병원 주변



앤더슨 선교사 사택

1912년 봄에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결국 1년이 지난 1913년 8월 27일에 사택에 도착, 1층은 앤더슨 선교사가, 10월 8일 도착한 레퍼트 선교사는 2층에 기거하였다.(본 건물은 1979년 원주 의과대학 신축으로 멸실 되었다).



1918년 9월 앤더슨 선교사 안식년 귀국 환영

뒤에 보이는 건물이 1916년 완공된 원주읍교회당 모습이다(원주청년회).



해외여성교회지부(1916년)

1869년 미국 북감리회가 창립하였고, 이교도 여성을 위한 선교사업 지원기관(헤링턴, 스네벨리(1919년) 트리셀(1922년) 등이 근무하였다. 6.25 전쟁으로 소실되었다.



해외여성교회(WFMS) 숙소(1918년)

현재 YWCA 부지에 건립되었고, 미국 북감리회 소속 여성교사 및 원주연합기독병원 초창기 여성교사(뉴먼, 하일러) 거주. 멸실 연도는 미상이다.





**노블(W. A. Noble, 1866~1946)**  
 1911년, 미국 북감리회 노블(W. A. Noble, 1866~1946)선교사는 앤더슨(A. G. Anderson)의료 선교사와 함께 원주를 방문하여 병원·사택 위치를 결정하였다.  
 원주 지방 선교관리 선교사, 감리사 및 병원 관리 책임자로서 1933년까지 사역하였다.



**1913년 건축된 서미감병원 전경**  
 서미감병원(Swedish Methodist Hospital)은 강원도 남부 지역에 건립된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다. 미국으로 이주한 스웨덴 출신의 미국 북감리회 신도의 기부로 인해 1913년 완공되었다(5,144달러). 서양식 벽돌 건물(2층/지하)이며, 크기는 30X40피트이다. 17병상으로 운영되었으나, 1933년에 폐쇄되었다.



**1913년 6월 완공된 서미감병원 - 앤더슨 의사 사택**  
 1911년 4월 앤더슨(A. G. Anderson)·노블(W. A. Noble) 선교사는 원주를 방문하여 사택, 병원 부지를 선정하였다.  
 1912년 봄에 사택 공사를 시작하였고, 1913년 봄에 완공하였다. 서양식 벽돌 건물(2층/지하)이며, 크기는 35X35피트이다. 1979년 원주의과대학 본관 신축에 의해 멸실되었다.



**1913년 서미감병원 설립 당시 병원 주변**  
 서미감병원 설립 당시 원주 읍내의 주변 모습.





**앤더슨(A. G. Anderson) 선교사**

앤더슨(A. G. Anderson / 안도선, 1882~1970년)은 Northwestern 의대 졸업. 인턴 및 방사선과를 수료하였고, 1911년에 한국에 도착하였다. 제5회 조선연회(1912. 3. 5)에서 원주 지역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1913~1920년까지 서미감병원(Swedish Methodist Hospital)에 근무하였다. 1920~1940년까지 평양연합기독병원 병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되었다.



**피터슨(H. F. Peterson) 선교사**

피터슨(H. F. Peterson)은 앤더슨 선교사와 결혼한 직후에 한국으로 향하였다(1911.1.4). Minneapolis Business College 졸업 후에 의료·복음선교를 위해 간호사·교사 교육을 받았다. 1940년 일제의 강제 추방으로 복귀하였다.



**레퍼트(R. R. Reppert) 선교사**

레퍼트(R. R. Reppert) 선교사는 1909년 내한하였으며, 1913년에 원주 지방 순행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의사는 아니지만 마취 기술이 뛰어났으므로 서미감병원에서 시행한 환자 수술에 참여하였다.



**맥마니스(S. E. McManis) 선교사**

맥마니스(S. E. McManis / 맥만수, 1891~1952)는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이며, Ohio Wesleyan 대학, Cincinnati 의대를 졸업하였다. St. Mary's Hospital에서 인턴 수료 후에 내한하였다(1924년). 1925년 2월~1929년 6월까지 서미감병원에서의료·복음선교사로 봉사하였다. 그의 아내(M. E. Wallace)는 공중 보건·유아 복지 사업에 헌신하였다.





1913년 서미감병원 - 환자 왕진 장면(앤더슨 / 간호사)



1914년 서미감병원 환자 - 치료후 들것 퇴원(종양 제거 후)

종양 제거술 후에 들것을 이용한 퇴원 장면(1914년).



1913년 서미감병원 - 환자 치료중인 앤더슨



1915년 서미감병원 환자 - 눈먼 두 형제 장비없이 수술 못함

안과 수술 장비가 도착하지 않아 집으로 가는 두 형제가 소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이채롭다(1915년).





1918년 앤더슨의 수술 장면  
수술 마취 장면(1918년 앤더슨 의사 / 레퍼트 선교사 / 윤선욱 의사 / 김영석 조수).



1918년 앤더슨의 치료 장면  
다리 골절 환자 치료  
(1918년 앤더슨·윤선욱 의사 / 김영석 조수).



1918년 앤더슨의 치료 장면  
팔 골절 환자 진료(1918년 앤더슨·윤선욱(세브란스 의전 출신) 의사).





서미감병원 환자(특이한 사마귀 환자)  
사마귀양 암 환자(좌측) - 사마귀 형태로 급성장하는 양성 피부암.



서미감병원 환자(괴저 발가락 환자)  
괴저 발바닥 환자(우측) - 괴저는 신체 조직에 영향을 미쳐 괴사(necrosis)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질환.



서미감병원 환자(발목과 발등 협착 수술 전 환자)  
발목·발등 협착 환자



서미감병원 환자(발목과 발등 교정 수술 후 환자)  
교정 수술후





서미감병원 환자(방치된 안면암 환자)

안면 혈관종 환자(좌측) - 얼굴 모세혈관 그물이 정상 혈관으로 발전하지 못해서 생기는 양성 종양.



서미감병원 환자(다리 종양환자)

다리 종양 환자(우측) - 무릎 부위에 발생한 종양.

### 3. 학교 설립과 교육 활동



1922년 정신유치원

원주읍교회에서 운영한 정신유치원은 1916년 12월 16일 설립된 강원도 최초의 유치원이었다. 현, 원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근 밝음주차장 위치에 있었으며 원주유치원의 전신이다. 뒤편의 건물은 1922년 촬영한 강원감영 관풍각으로 추정된다.



1932년 원주주일학교 제10회 졸업기념

1932년 1월 3일 원주교회당 뒤쪽에서 촬영한 원주주일학교 제10회 졸업기념. 앞줄 왼쪽에서 4번째가 신홍식 담임목사.





원주지방 대사경회

1933년 2월 5일 촬영한 원주지방 대사경회 참가자들 모습. 1916년 건축된 원주 최초의 서양식 개신교 원주읍교회당이고, 좌측 뒤로는 해외 여성선교부 지부가 보인다.



1933년 원주하기아동성경학교

1933년 8월 열린 제8회 하계아동성경학교 수료기념. 원주읍교회 인근에 커다란 소나무와 잔디밭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1940년 원주교회 주일학교

1940년 원주읍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중앙에 팔짱을 끼고 있는 분이 차경창 담임목사.





1940년대 나애시덕 선교사의 4H 활동

1940년대 후반 나애시덕 선교사의 지도로 4H 활동을 하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 모습. 온실 작물 기르는 법을 배우고 있다.



1941년 8월 원주유치원

원주에 처음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 앞에 모인 원주유치원 아이들. 건물 입구 좌측에 '도서실' 우측에 '사립원주유치원'이라는 한자 간판이 보이며 1941년경에 촬영한 사진이다.



1950년대 길거리 교육

문맹퇴치를 위한 한글 가르치기를 통해 노방 전도를 하는 모습. 사진 설명에 "길거리 학교, 미스터 김이 읽기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한글 읽기를 배우고자 하는 성인들과 아이들 뒤에 보이는 차량으로 보아 1950년대 초반으로 보인다.



1947년 원주유치원 제26회 졸업

1947년 원주유치원 제26회 졸업 기념.

졸업하는 아동들이 졸업장을 들고 여학생들은 스카프로, 남학생들은 넥타이로 단정하게 입은 유니폼이 이채롭다.





1948.3.24. 원주성경학원 제1회 수업기념

해방 이전 시작한 원주성경학원. 여성반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줄 오른쪽 2번째가 차경창 목사, 3번째가 주 강사인 스톱스(도익서) 선교사. 도익서 선교사는 1949년 3월에는 문막교회에도 단기선경학원에 임진국 감리사와 함께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1955년에는 대전신학원(현, 목원대학)을 설립했다.



1950년 문막가정여학교

6.25 전쟁 한 달 전 문막가정여학교 제2회 졸업기념 사진으로 1950년 5월 27일 촬영한 것이다. 뒷줄 왼쪽 2번째가 이선실 장로, 5번째가 나애시덕 선교사이다.



1950년 문막유치원 제9회 졸업기념

문막유치원 제9회 졸업기념. 문막유치원은 197년 11월 20일 처음 설립되었지만 중간에 운영의 어려움으로 계속되지 못하고 1950년 5월 27일 제9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뒷줄 오른쪽 2번째가 송성준 담임목사.



1953년 문막복음농민학교

1953년 3월 3일 문막복음농민학교 제1회 졸업기념. 전쟁 기간 동안에도 배움의 과정을 계속해 마친 학생들의 모습이 의연하다. 앞줄 왼쪽 2번째가 송성준 담임목사.





1959년 의성학교 양재과 2회 졸업

1959년 12월 27일 의성학교 양재과 제2회 졸업. 1948년 문막교회는 초등학교를 마친 여학생들에게 현모양처를 위한 가정여학교를 개설했다. 이후 의성학교 부설 양재과로 발전했으며 부교장으로 나예시덕 선교사가 기증한 재봉틀 2대, 울겐 1대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사진 중앙 임순목 목사와 이선실 교장.



1968년 의성학교 전경

1968년 문막교회당 뒷 모습과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의성고등공민학교 건물 전면 모습이다.



유치원 보모의 가정 방문

1920년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진으로 유치원 보모가 결석한 원아의 집을 방문해 원아의 보호자와 상담을 하는 광경.





유치원 부모의 원아 모집

유치원이 설립되었지만 우리 관습으로 부모들은 특별히 여자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꺼렸다. 이러한 환경에서 원아를 모집하려 마을로 나가 원아를 모집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



주일학교로 사용된 옛교회

원주읍 최초의 교회당으로 사용되었던 4칸반 초가 건물. 1916년 이후에는 주일학교 교실로 사용되었다.



주일학교로 사용된 옛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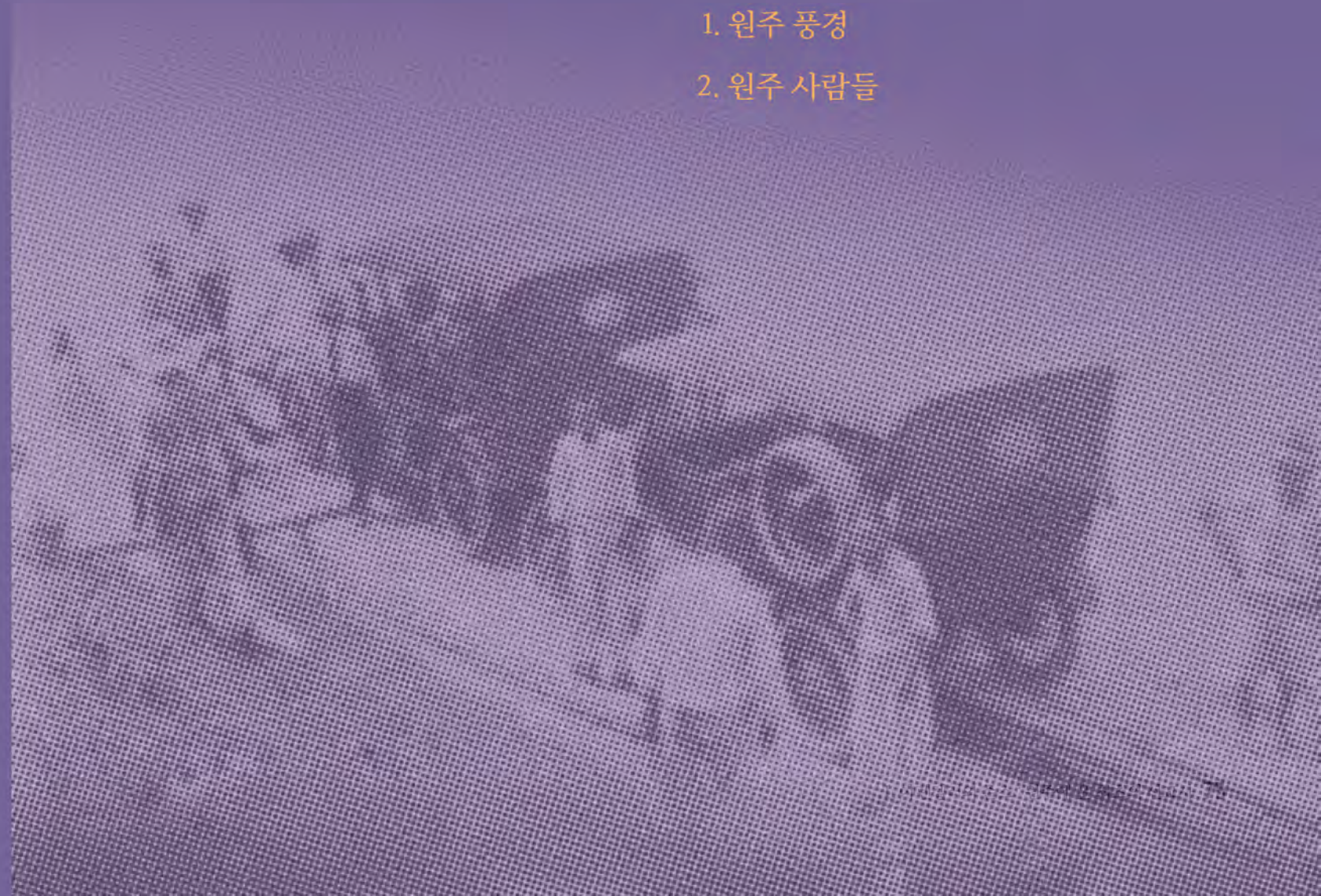
1916년 원주읍 교회를 신축한 후 4칸반 옛 교회당은 주일학교로 사용되었다. 수업을 마치고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부모와 아이들 모습. 1910년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 선교사의 눈을 통해 바라본 100년 전 원주

1. 원주 풍경
2. 원주 사람들





# 1. 원주 풍경

## [농업]



쟁기질하는 농부



장단에 맞추어 모심기 중인 농부들



모심기 중 농무를 즐기는 농부들



농부 식전 씻기  
논 일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려고 손발을 씻고 있다.



새참을 먹고 있는 농부들  
시골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한 후 일하러 나간다. 9시경에 아내가 '새참'을 들고 나오면, 농부는 이를 먹고 담배를 피운후 잠시 누워 낮잠을 자기도 한다.



젖은 땅에서 낮잠을 취하는 농부



농부들의 휴식  
이들간 내린 비로 땅이 축축하고 아침까지 비를 뿌렸지만 모두 앉아서 쉬고 있다. 고수가 흥겹게 북을 치고 있지만 한두 명이 논두렁 위에 누워 쉬고 있다.



담소를 나누는 농부와 자전거를 타는 마을사람 모습



선교사 일행의 포드 승용차를 보고 있는 농부의 아내와 물을 마시는 농부  
낮선 광경이다. 스스로 움직이는 수레를 처음 보는 듯하다.



1950년 전후 추수와 밭갈이 장면  
농업기반의 삶 터전에서 소가 끄는 쟁기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원주읍내 시장



일본인이 경영한 맥주가게



원주읍내 일본인이 경영한 사탕가게



원주읍내 한약방



## [문화재와 풍습]



봉산동 당간지주와 거북바위

봉산동 개봉교 끝에 설치된 당간지주. 기단부를 커다란 바위(거북바위)가 지탱하고 있다. 당간지주 아래 버랑에 거북이와 같은 넓은 바위가 있어 주변 마을을 '구정(龜亭)'이라고 하였다.



봉산동 당간지주(2018)

현재 거북바위는 밑에 묻혀있고 두 기둥이 나란히 서 있다.



머리 없는 불상



원주 남산의 탑과 불상



닭둥지와 새끼줄 헛대

주로 삶이나 야생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닭 둥지를 높은 곳에 설치하고 닭이 오를 수 있도록 헛대를 설치하기도 한다.



원주 길가의 서낭당



마을의 토롱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만든 토롱이다. 토롱기우제란 흙으로 용을 만들고 그렇게 형상화된 용을 대상으로 기우제를 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림이나 흙 등으로 용을 형상화하여 비를 비는 기우제는 이미 신라 때부터 행해졌고 근대에도 행해졌다.



[건물과 풍경]



원주 외곽의 대장간이 있는 작은 마을 모습  
이곳에서 10여 리 인근에 45개의 미전도 마을이 있다고 사진 설명  
에 나와 있다.



정자가 있는 원주공원



박원백 감리사 사택  
이곳에서 10여 리 인근에 45개의 미전도 마을이 있다고 사진 설명  
에 나와 있다.



원주읍교회 담임 목사 사택 부엌 아궁이



물레방아가 있는 마을 풍경



원주읍내 중심가 주택



원주읍내 중심가 주택



물레방아를 이용해 곡식을 찧는 아낙네



모리스 선교사의 순회 전도 여행  
떡메 치는 광경을 구경하는 모리스 선교사.



모리스 사택 건축 장면(1918년 11월 완공)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701호(원주 기독교 의료 선교 사택, 현재  
원주의과대학 일산사료전시관으로 사용중).





자동차 정거장



짚신 메기



우편물을 전달하는 우체부와 자전거

## 2. 원주사람들



강신화 목사 사택과 가족  
강신화牧사는 원주읍교회 3대 목사  
로 사역했다(1914.6.~1917.5.).  
이 사진은 당시의 목회자 주택과 가족  
의 모습을 보여준다.



원주선교부 최초의 지방순회전도사, 동석기 전도사 / 1914년  
1914년에 동석기 전도사는 최초로 원주지방회 지방순행전도  
사로 파송 받았다. 동석기는 1913년 노스웨스턴 개럿신학교  
(Garrett School of Divinity)를 졸업하고 원주지방 순행전도  
사로 파송받은 엘리트 목회자였다. 이후 인천 내리교회(1914),  
서울 마포교회(1917)를 거쳐 1919년 수원 남양교회 목사로 부  
임하였다. 1919년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옥고를 치  
렀으며, 1927년 다시 도미하여 유학 중 그리스도의 교회 신자  
가 되어 한국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발족시키고 그 발전을 위  
해 노력하였다. 이 사진은 1914년 인천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촬영한 사진으로 수줍어 하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루이스 감독 내방을 기다리는 원주교회 성도들

선교 초기 교단 감독이 지방을 방문하면 지방회 리더들은 성도들과 함께 그들이 읍내로 진입하는 길목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교회당에서 환영인사를 나눴다.

1914년 원주읍교회를 방문한 루이스(Lewis) 감독을 기다리고 있는 원주교회 성도들 모습이다.



루이스 감독과 원주선교부 직원들

1914년 봄 원주선교부를 방문한 루이스 감독과 원주지역 선교사와 목회자들, 왼쪽부터 박원백 감리사, 레퍼트 선교사, 노블 목사, 앤더슨의 사, 동석기 순행전도사. 의자에 앉은 분이 원주선교구역을 방문한 루이스(Lewis) 감독, 앞에 앉은 분들은 레퍼트와 앤더슨의 가족이다.



모리스의 상점 전도

모리스 선교사가 원주선교부 책임자로 온 것은 1916년이다. 이 사진은 1920년대 초기 원주의 상점을 방문해 전도하는 모리스 선교사 모습인데, 대화를 나누는 어른은 나막신을 신었고 주위에 모여있는 어린이들은 맨발로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모리스의 실신자 방문 전도

이 사진 설명에는 사진 찍은 곳이 운동이라 되어있어 모리스 선교사가 당시 호저면에 있던 운동교회(현, 만종역 앞) 인근 논을 찾아가 일하고 있던 농부들에게 전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박원백 감리사 부부**

1911년 원주지방회가 결성되고 첫 감리사로 박원백 목사가 파송되었다. 박원백 목사는 원주지방 감리사로 파송되기 전에는 해주 지방에서 목회를 하였다. 사진은 1914년 봄 원주지방회가 열린 시기 촬영한 것이고 뒤쪽으로 서미감병원과 원동성당 모습을 볼 수 있다.



**운문 마을의 며느리 3대 84세 63세**

원주 인근 운문마을에서 만난 40대 가족을 선교사가 찍은 사진이다. 사진 설명에 어머니가 63세, 할머니가 84세라고 적혀있어 아들과 며느리는 40대 중반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사진이다.



**원주 4H 활동과 전도 활동 모습**

사진 배경에 차량 등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1950년대 중반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진은 4H 클럽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토끼 기르는 기술과 양묘 기술을 교육하고 있고, 아래 사진 좌측은 그림을 보여주며 성경 말씀을 전하고, 우측은 문맹자들에게 읽기 지도를 하고 있는 김 선생이라고 소개했다.



**순회 진료 봉사와 1949년 원주교회 세례문답자들 기념사진 촬영**

6.25 전쟁 이전으로 보이는 이 사진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순회 진료 서비스를 하는 경을 보여준다.

한편 파이프 오르간을 배경으로 찍은 우측의 사진은 1949년 4월 17일 부활주일날 세례문답을 마친 원주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다. 강대상 뒤에 서있는 분이 원주교회 임진국 담임목사이다.





원주 전도부인

원주선교부 파송 첫 전도부인, 안경숙(安瓊淑) / 1915년

개화 초기 당시 한국의 문화와 관습에 의하여 남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교육 받을 수 없었다. 1916년 박원백 감리사 보고에는 “마커(Miss Marker)양이 2회의 사경회를 개최했고, 프레이(Miss Frey)양이 2명의 전도부인을 보내줬다.”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원주선교부에는 이미 1915년에 2명의 전도부인이 사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 1명은 원주서미감병원 앤더슨 의사를 도와 여성환자를 심방하며 전도하던 앤더슨 조사의 부인 클라라(Clara)였다.

이 사진의 주인공으로 원주에 파송된 첫 전도부인은 바로 강신화 목사와 함께 사역한 안경숙(제일감리교회 100년사에는 한자 표기가 安敬淑으로 되어있음) 전도부인이다.



원주 전도부인

선교 초기 전도부인은 크게 대영성서공회에서 고용한 직원이 있었고 선교사들이 고용한 직원 그리고 개교회 자체로 임명한 전도부인이 있었다.

이 사진 오른 손에는 쪽 복음서, 왼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전도지로 보인다.



원주 전도부인

이 사진 설명에 전도부인(Bible Colporteur) 이라고 쓰여 있고 또한 부인이 든 가방을 볼 때 이 전도부인은 쪽복음 책을 주로 판매하며 전도했던 교회에서 임명한 전도부인으로 보인다.





원주 전도부인 활동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전도지를 전하는 전도부인 모습.



원주 전도부인 활동  
전도부인들이 모내기 하러 논에 간 농부를 논길에서 만나 전도지를 전하는 모습이다.



원주 전도부인 활동  
일하고 있는 아낙을 만나 전도지를 전하는 전도부인의 모습. 당시에는 희귀한 양산 대웅 장우산을 볼 수 있고, 일하는 아낙은 맨발이지만 전도부인이 신고 있는 가죽 부츠 모습이 대조된다.



원주 전도부인 활동  
전도부인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 아낙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아낙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난감해하는 전도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원주 시장터 인근에서 옹길 짐을 기다리고 있는 소들과 소 주인 모습**  
 많은 짐을 엮기 위해 소 등위에 올려놓은 길마(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앉는 연장) 모습이 이채롭다.



**장마당의 옷장수**  
 20세기 초반 원주를 장터에서 옷장사가 길가 집 벽에 옷가지를 걸어놓고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여윌롭다.



**길거리 주막**  
 20세기 초반 원주를 장터에서 볼 수 있었던 단출한 주막 음식점 주인 할머니와 식사를 하러온 손님의 모습이다.



**농립을 쓴 농부**  
 농부들이 주로 많이 쓰고다녀 농립(農笠)이라 불렸던 삿갓을 쓴 농부와 주위에 초등 학생들은 교모를 썼고, 촌로들은 갓을 쓴 모습을 볼 수 있다.





길거리 해산물 상인  
내륙 지방인 원주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말린 미역을 팔고 있는 상인과 상품 진열대도 없이 길 바닥 위에 팔려고 늘어놓은 마른 미역.



일제강점기 자동차 정류장  
해방 이전시기 원주읍에서 운영되었던 대중교통수단인 8인승 포드 자동차. 자동차가 많지 않던 때라 번호판 두자리 숫자 30이 눈에 띈다.



원주읍 도심에 있던 포드 자동차 영업소  
자동차를 타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주위에는 관리인 듯한 제복을 입은 사람도 보인다. 길 옆으로는 덮개 없는 하수도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시장터에서 담뱃대를 팔려고 좌판을 깔아놓고 담뱃대를 수리하고 있는 상인 모습



양지바른 곳에 좌판을 깔아놓고 갓을 팔고 있는 상인과 시장 물건을 보는 구경꾼들 모습



시장터에서 쌀장수가 쌀을 말에 담아 쌀자루에 넣는 모습



지계에 용기 제품을 한가득 지고 장터로 팔러가는 용기장이 모습



## IV

### 부록

논고 1. 원주에 복음을 전한 첫 사람들  
... 이진만 선교사

논고 2. 원주지방 첫 근대병원 서미감병원  
... 안성구 일산사료전시관장

논고 3. 원주지방 최초의 교회  
... 안성구 명예교수, 윤종원 부장

논고 4. 선교사들이 기록한 원주 이야기  
... 윤종원 장로





## 논고 1. 원주에 복음을 전한 첫 사람들

이진만 선교사\*

### I. 들어가는 글

원주지방에 개신교 선교 초기 처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아직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 다만 원주지방 초기 선교역사는 몇 분 교회사 학자들이 쓴 ‘초기교회 형성사’와 원주·여주·제천·충주 지역의 오래된 교회를 중심으로 발간된 개교회사를 통해 정리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원주지방 선교 초기 자료를 소개해 보자면 그 첫 책은 『A Modern Pioneer In Korea』로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가 쓴 아펜젤러의 전기이다. 이 책을 이만열 교수가 번역해 아펜젤러의 보고서, 일기 등과 함께 1985년 연세대학교출판부에서 『아펜젤러』로 펴냈다. 이 책에 언제 원주지방에 선교사들이 방문했는가 하는 기술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과 교회사에 관해 글을 쓰는 분들이 인용해 소개한 자료는 아펜젤러에 관한 책 발간 20년이 지난 2005년, 이덕주 교수가 “원주제일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원주제일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강연 발표 자료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세 분이 소개한 원주지방을 처음 방문한 선교사들에 관한 기술 중 몇몇 부분은 잘못 되어있다. 이 잘못된 자료들이 고착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여기에서 몇 가지 오류를 바로잡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 1. 1889년 8월 19일(월요일) 아펜젤러와 존스 선교사가 처음 원주를 방문했다.

##### 1) 원주를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

앞에 머리글에서 소개한 자료에는 아펜젤러와 존스가 원주지방을 방문한 기간을 1888년 8월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순행 중 원주를 방문한 날짜는 토요일이고 다음날 순행선교사 2명이 강원감영(江原監營) 객사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그리피스, 이만열, 이덕주 모두 그렇게 기술했는데 이 부분은 세 사람 모두 오류이다.

아펜젤러와 존스 두 선교사가 남긴 1889년 남부순행일기를 보면 분명 그들이 원주지방을 방문한 날짜는 1889년 8월 19일 월요일이었으며, 그들이 강원도 원주로 오며 주일 예배를 드린 곳은 8월 18일 주일 경기도 지평(砥平)이었다.

##### 2) 처음 원주를 방문한 선교사들의 순행 경로

\* 이진만 선교사는 우간다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마치고 현재는 초기선교역사 자료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저서로 『국제회의 기획 운영』, 『매서인은 교회설립의 선구자였다』, 『문막교회117년사』 등이 있다.

조성환은 그가 집필한 『헨리 G. 아펜젤러 문서』에 아펜젤러와 존스의 남부순행 코스에 충청도 공주를 경유해 원주에 도착했다고 기술했다.

김석영은 그의 책 『처음 선교사 아펜젤러』에 이만열의 책 『아펜젤러』 내용을 인용해 원주 여행 코스에는 없었던 충청도 ‘내포’를 경유해 원주로 갔다고 기술했다.

또한 한국감리교회역사학회 창립 회장을 역임했고 동부연회 초대 감독으로 사역한 윤춘병은 『여주중앙교회100년사』에 “아펜젤러 목사는 1889년 3월 존스 선교사와 동행하여 충청도 동쪽(이천, 여주)을 지나 원주, 제천, 안동을 거쳐 부산까지 순회 전도여행을 다녀온 일이 있다.”고 기술했다. 위에서 조성환이 기술한 아펜젤러의 공주 여행은 남부순행과는 관계가 없는 1889년 2월의 순행으로 아펜젤러와 올링거 선교사가 공주를 다녀온 것이다. 또한 김석영이 기술한 두 분 선교사가 남부순행에 충청도 내포를 경유해 원주로 갔다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윤춘병의 “충청도 동쪽(이천, 여주)을 지나 ……”라는 기술은 한국에는 와 본적도 없이 처음 아펜젤러의 전기를 펴낸 그리피스의 서술을 여과 없이 인용한 오류이다.

원주지방을 처음 방문한 아펜젤러와 존스 선교사의 원주까지의 경로는 조선시대 고속도로 성격을 띤 평해대로 노선으로 서울→양평→지평→고송→양동→솔치고개→안창→원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 II. 원주지방에 선교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

선교역사, 교회역사에 관심을 가진 분들 중 어떤 이들은 ‘현재 한국 교단의 주류로 성장한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 중 어느 교단 선교사가 먼저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딘 분인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이는 자기 교단 선교사가 한국 선교에 처음 도착한 분이라는 여러 이유를 대며 강조하고 자신이 속한 교단이 한국 선교의 ‘장자 교단’이라고 주장을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에는 우리 사회에 편만한 우월주의, 권위주의, 1등주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양대 교단을 대표하는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올림픽 경기처럼 ‘처음’ 경쟁을 하기 위해 온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같은 날 같은 배로 조선에 들어와 협력하며 한국 선교의 기틀을 닦았다. 즉, 함께 협력하는 ‘에큐메니컬’ 선교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성서번역, 목회, 교회설립, 선교여행, 선교정책 등에서 그들이 도착해 함께 추구한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었다. 원주 도성에 복음을 전한 첫 선교사들이 다녀간 지 이미 한 세기가 훌쩍 넘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원주 선교 관련 초기 사진 자료를 발굴 정리해 화보집으로 펴내 기록하고 초기 선교역사를 후세들에게 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했을 때 그는 그의 사역이 계속 이어질 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원주 땅에 복음을 전한 첫 사람들은 누구일까? 복음과 선교의 본질을 생각하며 원주지방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첫 사람들부터 이를 가꾼 사람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 1) 원주지방 첫 선교관리자, 노블 선교사 / 1901년

1901년 연회에서 미감리회는 지방(District)을 나눠 북지방에는 노블, 서지방에는 존스, 남지방에는 스크랜턴에게 지역선교를 책임지게 하였다. 본격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선교하려는 목적이었다.

비록 노블 선교사가 원주지방을 방문한 것은 그가 북지방 선교관리자로 임명된 이후 1911년이었지만 노블 선교사는 원주지방 선교를 관리한 첫 선교사로 기록된다.

### 2) 원주 땅에 복음을 전한 첫 전도인 장춘명 / 1901~1902년

지금까지 알려진 원주 도성에 1905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무아각’ 무스(Moose) 선교사, ‘고영복’ 콜리어(C.T. Collyer) 선교사 그리고 이들을 안내하여 원주에 들어와 전도한 ‘조선인 교역자’ 장의원 전도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원주 땅에 복음을 전한 첫 사람은 누구일까?

1902년 5월호 <신학월보>에 보면 “장춘명의 전도 구역은 이천과 광주, 여주, 장호원, 죽산, 음죽, 용인, 양지, 충주, 진천, 제천 등 경기도와 충북 경계를 넘어 ‘원주’까지 확대되었다.”<sup>1)</sup>라는 보고 내용이 있다. 이 기사에서 장춘명이 정확하게 언제 원주를 방문했는지 그 일자 는 알 수 없지만 이 보고가 이뤄진 것은 1902년 3월 11일에 이천계삭회가 이천읍교회에서 열릴 때이므로 원주 땅에 첫 복음이 전해진 때는 1901년에서 1902년 3월 이전으로 볼 수 있다. 1902년 이천교회에 담임으로 파송 받은 미감리회 전도사 문경호는 1903년 봄, 장춘명과 함께 이천지방을 순회한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서 초기 원주의 선교 상황을 알 수 있다. 문경호와 장춘명은 서로 이웃하고 있는 이천과 원주 두 지방을 돌아보았다. 먼저 이천지방 여덟 고을 38개 교회를 둘러보고 여주를 거쳐 원주로 들어갔다.<sup>2)</sup> 또한 여주 동편 선교적 역동성에 대하여 1905년 미감리회 조선선교연회에서 스웨어러 선교사는 이러한 보고를 했다.

“여주구역은 작년에 여주구역과 음죽구역으로 분할되었다. 또한 이전에 이 구역에 소속되어 있던 다섯 개의 공동체가 남감리회의 무스 형제에게 최근 양도했다.”<sup>3)</sup>

이러한 자료를 근거해 보자면, 원주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매서인 장춘명이고 초기 복음의 전파는 여주강 동편인 원주 부론 땅 근처부터 문막지역까지 장춘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 3) 원주지방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 아서 웰본(Arthur G. Welbon) / 1904년

북장로회 선교부 아서 웰본(Arthur G. Welbon) 선교사는 남감리회 선교사들이 원주지방을 순회하기 몇 달 전 1904년 11월 23일 서울을 출발하여 경기도 양근, 곡수를 거쳐 12월 1일 원주에 도착했다. 아서 웰본의 일기를 보자.

“1904년 12월 1일 아서-

5시쯤 일어나서 7시에 출발했다. 셋길로 오느라 몇 사람 밖에 못 보았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아침나

절에 40리를 왔다. 마을<sup>4)</sup>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는 길을 잃어버려서 날이 저문 뒤에야 원주읍에 이르렀다. 여관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 이제껏 잔 방 중에서 제일 작은 방에 들었다.”<sup>5)</sup>

아서 웰본은 다음날 기도회를 마치고 원주 읍내 거리로 나가 책(쪽북음)과 달력을 팔았으며 계속해서 횡성, 홍천을 거쳐 12월 5일에는 춘천으로 전도여행을 계속했고 금성읍을 거쳐 12월 16일 서울 집에 도착했다.

2년 후 아서는 1906년 2월에도 원주를 찾았다. 2월 15일 서울을 출발해 양근, 풍수원을 거쳐 원주에는 2월 20일 정오 전에 도착해 많은 책을 팔기도 하고 원주에 오기 전 지나는 마을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진행했다. 아서 웰본은 1902년부터 철원을 중심으로 강원도를 독립구역으로 삼아 관리했다. 이후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아서 웰본은 1909년 봄 클라크(C. A. Clark, 꺾안련)와 함께 원주로 들어가 “원주읍 동쪽 변두리, 언덕 가장자리에 위치한 선교부지 20에이커를”<sup>6)</sup>확보하였고 그해 9월에는 교계예양 협정에 의해 북감리교회에 원주선교부를 넘겨주고 안동선교부를 개척한 선교사이다.

### 4) 원주지방에 교회를 설립한 첫 본토인, 이계삼 권사 / 1905년

이계삼 권사는 조선시대 말기 1885년(고종 22) 함경도 청진에서 태어났다.

1900년대 초 홀어머니를 모시며 청년 시절 흥원창에서 일을 하며 종자돈을 모은 이계삼은 부론면 홍호리 김귀제(金龜濟)와 혼인한 누이 이씨(李氏)와, 농사를 지으며 흥원창에서 살겠다는 동생 이회원(李回源)을 남겨두고, 그곳에서의 활동을 정리한 후 홀어머니를 모시고 그 당시 경제활동이 더 활발했던 건등면(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40번지(당시 장터 인근)로 이주해 정착했다.

1905년 봄 이계삼은 함경도에서 영접한 예수님을 모시기로 하고 문막 장터에 있는 그의 집에서 모친과 그리고 몇몇 믿는 이들과 함께 집에 마련한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원주지방에 교회를 설립한 첫 본토인은 문막교회를 창립한 이계삼 권사이다.

### 5) 원주지방에서 처음 열린 사경회 주최자, 왓볼드(Wamdold) 선교사 / 1908년

왓볼드 선교사는 1866년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며, 북장로회 선교사로 1896년 5월 내한하여 이임할 때까지 정신여학교에서 봉사를 하였는데, 1908년 원주지방이 북장로회 선교구역으로 이관되었을 때, 10월 21일 원주에 도착하여 5일간 여성 사경회를 인도했다.

1908년 《the Korea Mission Field 》12월호에 기고한 왓볼드의 선교사역 보고 ‘33일간의 지방 사경회’를 통해, 당시 대부분의 교회에 전임 ‘본처전도사’도 없던 시절 어떻게 선교활동을 하였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왓볼드의 이 보고서는 1908년 이전 원주지방에 있던 원주교회, 문막교회, 횡성교회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잘개미교회’<sup>7)</sup>의 초기 원주지

1) <신학월보> 1902년 5월, 147~148쪽.

2) 문경호, “교회가 왕성함”, <신학월보>, 1903.5, 194쪽.

3) W. C. Sweaer, "South Korea District", (1905).

4) 나룻배로 강을 건너 40리를 걸은 후 점심을 먹은 마을은 문막으로 추정된다.

5) 프리슬라 웰본 에비, 번역 강현희, 김현수, 『서울장로교 선교사들의 일상』, 에스더 재단, 2017, 141쪽.

6) Minutes and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to the Annual Meeting, 1909, p.71.

7) 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잘개미(자감촌). 한라대학교 앞마을.



방 교회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한편, 1911년 6월 원주지방회가 결성된 이후 열린 첫 사경회는 그 이듬해 1월에 열린 것으로 보인다.

“원주지방 사경회가 1912년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10일 동안 원주읍에서 60여 명이 모여 특별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갑·을 반으로 나누어 마태복음, 전도법, 구약총론, 창세기, 신약총론, 마가복음, 고린도전서, 규측대강 등을 공부하였는데 교사로는 박원백(감리사), 권신일(원주구역), 이동기(평창구역), 김종식(횡성구역)이 수고하였다.”<sup>8)</sup>

#### 6) 원주선교부 첫 부지 매입 마무리 / 1909년

1908년 왓볼드 선교사가 보고한 사경회 보고서에는 “원주에 도착했을 때 내가 클라크(C. A. Clark, 궩안련) 선교사한테 받은 편지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선교사 주택을 위해 사놓은 새로운 땅 부근에 가지 말라고 하였다. 내가 조심스럽게 그쪽을 봤을 때, 거기는 높지 않은 산등성이가 보였고, 1894년도 서울의 연못골과 비슷했다.”라고 기록 되어있지만, 1908년에는 부지 매입 계약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부지 매입대금을 전하지 않은 가계약 상태로 보인다.

1937년 1월 1일 <감리회보> 3면 기사를 보자.

“1907년에는 장감(長監) 양 교파에서 전도구역을 정할 때에 본 교회는 장로파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 때 장로파 선교사 궩안련(郭安蓮), 오월번 양씨와 조사 김영옥(金永玉), 영수 엄응삼(嚴應三) 제씨의 주선으로 토지 2만여 평을 사서 선교회 용지로 충당하다. 이 때 신자는 15인이었다.”

원주지부 선교관리자 아서 웰본 선교사의 부인 새디의 1909년 3월 1일자 일기에는 “언더우드 박사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편지를 보내셨다. 박사님은 그 곳에 사는 여성 한 분이 원주 병원을 위해 \$5,000 모금을 약조했다고 하셨다.”<sup>9)</sup>라고 기록했다.

계속해서 3월 12일자 일기에는 “갬블 씨로부터 원주지부 부지를 위해 \$300을 이사회로 송금했다는 편지가 왔다.” 이렇게 기록되었고 이 기금을 가지고 웰본은 안식년 휴가에서 돌아와 ‘20에이커’(2만여 평)의 땅을 북장로회 원주선교부지로 매입절차를 마쳤다. 이 선교부지는 남감리회에서 서원촌에 마련한 4칸 반 초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넓은 규모였다.

사실 웰본은 원주에 강력한 선교부를 개설하여 예배당은 물론, 학교와 병원까지 설립하여 원주를 강원도와 충북선교의 구심점으로 삼으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마련한 북장로회 원주 선교 부지는 1909년 체결된 양 교단의 선교지 분할 협상 결정에 따라 웰본은 원주를 미감리회 선교회에 넘기고 경북 안동 선교부로 옮겨 갔다. 미감리회 선교회는 미북장로회에서 마련한 2만여 평의

선교부지를 2,400엔(1,200달러)을 주고 인수하였다.<sup>10)</sup> 이로써 원주는 2년 만에 다시 감리교 선교구역이 되었다.

#### 7) 원주지방 첫 파송 목사와 전도사 / 1909년

1909년 9월 원주지방이 북감리회로 변경될 때 첫 목회자로 권신일 목사와 박현일, 김종식 전도사가 파송되었다. 파송 받은 목회자들은 모두 인천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원주지방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데밍(Charles S. Deming, 都伊明) 선교사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데밍 선교사는 1909년 9월 원주지방 선교관리자였는데 서울에 주재하고 있으면서 여러 지방 개척된 감리교회 선교관리자로 일했다.

이후 원주선교부에 파송된 최초의 여 전도사는 전밀라(全密羅)로 1935년 원주지방 순회전도사로 임명되었다. 전밀라 전도사는 제천읍교회 출신으로 원주 의정학교를 졸업한 후 공주 영명학교를 거쳐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 후 한국 여성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

#### 8) 원주지방 첫 지방회 결성 및 첫 감리사, 박원백 목사 / 1911년

1911년 6월 보고에 의하면 당시 원주지방회 교인들은 입교인 36명, 세례인 351명, 학습인 791명, 원입인 2,182명 총 3,360명으로 보고되었다. 1909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북감리회의 강원도지방 선교가 이제 막 시작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 서울지방에서 관리하던 원주에 1911년 6월 원주지방회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원주지방회가 결성되자 첫 감리사로 박원백 목사가 파송되었다. 1894년 기독교에 입교하였으며, 1900년 3월 평양 남산현교회에서 선교사 노블(Noble W. A.)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1904년부터 전도사 직첩을 받았고, 1908년 미감리회로부터 집사목사, 1911년 장로목사 안수를 받았다. 원주지방 감리사로 파송되기 전에는 해주지방에서 목회를 하였다. 이로써 원주지방은 여주와 원주, 횡성, 평창을 잇는 중부선교 벨트(서-동)와 강릉, 삼척, 울진, 평해를 연결하는 동해안 선교라인(북-남)을 구축을 하게 되었다.

#### 9) 원주지방을 방문한 첫 감독 / 1912년

원주지방회가 결성된 후 처음 원주읍교회당에서 열린 원주지방회에 당시 미감리회조선연회 회장은 해리스 감독이 참석했다.

“최초의 원주지방회는 1912년 2월 7~9일까지 열렸는데, 참석자는 해리스 감독, 노블 감리사, 우래벗 목사, 앤더슨 목사(의사), 박원백 감리사, 권신일 목사였으며, 제반 사무 처리를 할 때 임시회장은 노블 감리사, 서기는 박현일이 담당하였다.”<sup>11)</sup>

8) <그리스도신문> 1912년 2월 29일자, 2면.

9) 프리실라 웰본 에비, 『한국 선교사역의 확장기』, 에스더재단, 154쪽.

10) Annual Report of Foreign Mission Board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11, p.204.

11) <그리스도신문>, 1912년 2월 29일자, 2면.



#### 10) 원주선교부 첫 파송 주재 여선교사, 힐만(Hillman, Mary R. 故薦) 선교사 / 1915년

1915년 12월 22일 제출된 조선총독부 관보 규칙에 의거 신고한 자료 1916년 3월 30일 1094호 7면 포교계출(布敎屆出)에 의하면 원주선교부 첫 파송 주재 여선교사는 힐만 선교사이다.

힐만 선교사는 1892년 오하이오 웨슬리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 파송 이전 뉴욕 헤르키머에 있는 폴츠 선교연구소에서 잠시 공부했다. 1915년 연말에 원주선교부로 전임해와 10여 년간 원주 강릉지역 선교사업에 임했으며, 1925년 서울로 이전, 정동에서 조선예수교서회 번역일을 하였다.

힐만 선교사는 1870년 4월 21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했고 1928년 2월 1일 서울에서 소천해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 11) 원주선교부 주재 첫 외국인 감리사, 모리스 선교사 / 1916년

모리스 선교사는 1900년 미국 감리교 해외선교부의 파송으로 한국에 왔다.

내한 초창기 5년 동안 모리스 선교사는 평양에 거주하며 평양 이북지역 선교를 담당했다. 그가 맡은 지역은 영변, 혜천, 원산, 선천, 맹산 등 10여 개 지역이었다. 1906년부터 6년 동안은 평안도 영변선교부 책임 감리사로 활동했다. 1916년부터 강원도 원주 선교부에서 원주를 중심으로 문막, 제천, 영월, 평창, 정선, 이천, 강릉 등을 책임지는 감리사로 활동했다. 선교 환경이 가장 열악한 강원도를 담당한 모리스 선교사는 불철주야 몸을 사리지 않고 오지를 오가며 선교에 전념하다가 1926년 말경 동해안 전도여행 중 간과 위에 악성종양이 악화되어 1927년 1월 18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천했다.

강원도 감리사였던 신흥식 목사는 모리스 선교사가 헌신했던 원주읍교회 마당에 ‘모리스 선교사 기념비’를 세워 ‘선교에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 쏟았다(宣敎盡忠竭力)’이라는 글귀로 그를 기렸다.

#### 12) 원주지방 목회자를 역임한 첫 독립운동 유공자 / 1919년

이병주 전도사는 1924~1925년 원주지방에 소속된 단양교회, 1926~1927년 충주 목계 교회 계속해서 1927~1929년까지 문막교회에서 사역했다. 이병주 전도사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3.1만세 운동 당시 연희전문학교 학생회장으로서 서울에서 전개된 학생 연합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른 독립 운동가였다.

이병주 전도사는 “출옥한 뒤 일경의 감시를 피하여 상해(上海)로 망명하였으며, 1921년 8월에 태평양회의 외교후원회(太平洋會議 外交後援會)를 발기 조직하게 되자 그는 서기(書記)로 피선되었다. 또한 1922년 2월에는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경기도(京畿道) 대의원(代議員)으로 피선되어 활동하였다. 1922년 10월 1일에는 김구(金九)·조상섭(趙尙燮)·손정도(孫貞道) 등과 함께 한국의 독립은 오로지 무력을 양성하여 혈전(血戰)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 아래 발족된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1923년 3월에 그는 국내활동을 위하여 인천을 통해 들어오다가 다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13) 독립운동으로 체포된 첫 원주지방 목회자들 / 1920년

1920년 3월 17일 <기독신보>에 감리교 목회자와 교인들이 대거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원주지방 순행목사 방기순 씨와 전도사 조운여씨, 철원 박연서 전도사, 강릉교회 목사 안경록씨는 모사건으로 인하여 당국에 체포되었다더라.” 당시 방기순 목사는 횡성교회 담임이었고 조운여 전도사는 원주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다.

#### 14) 원주지방 출신 첫 순교자

황덕주 목사는 원주군 문막읍 반계리 862번지에서 태어났다. 1917년 4월 문막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21년 3월 졸업하고, 공주로 내려가 1925년 3월 영명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25년 4월 원주 서미감병원에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첫 목회지인 영월구역(1930~1931년)에서 목회한 후 다시 원주로 왔다.

해방 이후 평양이 공산당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자 남하해 대전형무소 교무과장 형목(刑牧)을 하다가 6.25 전쟁이 발발해 문막면 반계리에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피난하기 위해 고향 반계리에 와서 여주로 넘어가는 샷샷봉까지 갔는데, 지방 빨갱이들한테 잡혀 그들이 만든 내무서에 구금되었다가, 9.28 수복 이전 북한군이 후퇴하며 처형해 순교하게 되었다.

## III. 원주지방 첫 교회창립과 첫 선교관련 기관

#### 1) 원주지방 첫 개신교회 창립, 원주제일교회와 문막교회 / 1905년

『원주제일교회100년사』에는 교회 창립일을 1905년 4월 15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문막교회117년사』에는 교회 창립일을 1905년 4월 1일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주지방의 첫 교회는 어디로 보아야 하는가? 이를 밝히는 것은 복음과 선교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양 교회사에 기록된 교회 창립일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원전 사료가 없어 어느 교회 창립이 먼저 되었는가 하는 명확한 판단은 할 수 없고 다만 사료에 근거한 교회 설립 경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원주제일감리교회(原州第一監理敎會)는 현재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이지만 시대에 따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아래와 같은 별명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 서원촌 예배당 : 무스 선교사가 원주읍교회 창립 당시 원주교회가 위치한 상동리 115번지 동리에 따른 옛 이름을 사용했다.
- \* 읍후동(邑後洞) 미감리교회 : 원주군 본부면 읍후동. 1916년 4월 13일 포교소계출 때 이름이다.
- \* 원주읍교회 : 원주교회가 원주읍내 유일한 교회일 때 일제치하의 “1면1교회” 정책에 있을 때 사용한 이름이다.
- \* 원주제일교회(원주교회) : 제2교회(학생교회)가 1952년 4월 21일 창립하며 원주읍교회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원주제일교회로 사용하고 있다.
- \* 문막감리교회(文幕監理敎會)는 현재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이고 처음 창립할 때 교파명은 사용하지 않았다.



\* 문막교회(文幕教會) : 창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문막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이다. 다만, 6.25 전쟁기간 중 몇몇 타교단 교회가 문막에 설립되기 시작하며 교회 공식 명칭을 “문막감리교회”로 사용하고 있다.

## 2) 원주지방 첫 기독교 교육기관

### ① 원주읍교회 유치원 / 1916년 12월 16일 설립

원주읍교회에서 운영하던 이 유치원은 ‘정신유치원(眞新幼稚園)’이라 불렸으며 초대원장으로 힐만 선교사, 초대 보모로 한세련 씨가 맡았다.

### ② 매일학교(Day School) / 1912년 설립 추정

원주, 강릉지방 매일학교 통계표(1912~1918)에 의하면 1912년 원주 1곳에 매일학교가 있었다. 앤더슨 부인(Mrs. A. G. Anderson)은 보고에서 그들 부부가 처음 원주에 왔을 때, 적은 무리이지만 소망이 있는 교인들이 있었고, 주일학교와 매일학교를 한국인 감리사 부인이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앤더슨 부인은 이 사역에 함께 했으며 이 지역에 파송된 여성 해외선교회 첫 여성 선교사로서 이 지방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 ③ 의정학교(義貞學校) / 1913년 설립 추정

원주읍에 설립된 사립남녀공학 교육기관인 의정학교(義貞學校)의 시작은 1913년 어간으로 보인다. 원주지방 최초의 남녀공학이던 의정학교는 일제에 의해 1917년 원주공립보통학교와 병합되었다. 참고로 1913년 당시 여학교로는 원주에 의정학교, 횡성에 정화여학교가 있었다.

## 3) 원주지방 첫 근대병원

1912년 앤더슨 의사가 원주선교부 선교 의사로 파송되며 ‘스웨덴감리교병원’ 설립이 추진되었다. 1913년 8월 앤더슨 의사 가족이 원주에 도착했고, 원주 첫 근대병원인 서미감병원 개원은 11월 15일이었다. 서미감병원은 강원도 남부 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서양식 근대 병원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 4) 원주지방 첫 근대 교회당 건축물, 원주읍 원동성당 / 1913년

원주읍에 세워진 첫 근대 교회 건축물은 1913년 2월 21일 뒤편 주교에 의해 성당 축성이 이뤄진 원동성당이다. 당시 원동성당은 건평 70평 붉은 벽돌 양옥으로 건축되었다.

원주읍에 건축된 첫 개신교회 건축물은 원주읍교회당으로 1916년 상동리 398번지에 70평의 연와조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부지 1,200평은 김신해 성도의 기증, 건축비는 미국 스웨덴 교회로 부터의 원조”<sup>12)</sup>를 받아 지었다. 새 교회 건물이 완성되고 1916년 11월 18일(토요일) 첫 예배를 드렸으며, 1916년 12월 17일(수요일) 웰치 감독에 의해 헌당식이 거행되었다.

## IV. 결론 및 제언

원주지방회는 1911년 6월 결성되었고 첫 감리사로 박원백 목사가 임명되었다. 아래 자료는 1912년 감리회 연차총회에서 노블 선교사가 보고한 원주지방회 소식이다.

“원주지방은 12개의 면에 약 400,000명의 인구가 있다. 원주 구역에는 전체 2,860명의 등록 교인이 있다.<sup>13)</sup> 34개의 교회가 있으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도처에 54개의 예배모임이 있다. 원주 구역을 다 순행하려면 2,000리를 걸어야 하고 약 45일이 소요된다. 원주 구역에는 2명의 안수목사가 있고 4명의 본처 전도사와 6명의 권사가 사역하고 있다. 이 구역에 전도부인은 없다. 600여 명이 지난 겨울 사경회 때 성경 공부를 했다. 우리 지역에는 한 개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7개 공립학교, 4개 사립학교가 있으며 전체 학생 수는 800명이다.”<sup>14)</sup>

이 원주지방회 보고 이후 111년이 지난 2022년 현재 원주에는 366개 지역교회와 8개의 군인교회, 1개의 경찰교회 그리고 30개의 기독교기관으로 원주시기독교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 당시 2명의 안수목사뿐 이었던 당시 원주읍과 비교해 무려 200배나 많은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으며 200배에 달하는 교회가 설립되어 질적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주에 복음을 전한 첫 사람들과 교회를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행적을 몇 개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보여준 선교 사역은 파란만장했고 또한 그들의 삶은 바로 개신교 초기 선교역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선교역사 화보집 발간을 기회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선교역사 자료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첫째, 처음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성실한 관찰자였다. 그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철수하게 되던 시기까지 남긴 사진, 보고서, 일기, 편지 등에 묻혀 있는 선교사들 자료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했던 토착 전도인들의 자료들이 발굴되어 전해지기를 바란다. 이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목숨까지 바치며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선진들의 희생정신이 후세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원주 지역에 처음 조직적으로 선교를 시작한 1911년 이후부터 6.25 전쟁 시기까지 개신교 선교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원주지방회의 사료가 안타깝게도 1968년 이전 사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타 지방에서는 이미 발굴 정리해 출간한바 있는 이러한 초기 선교역사와 지역교회사 자료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더 늦지 않은 시기에 실시되기를 바란다.

또한 개화기부터 원주지역에는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를 시작으로 8.15 해방 이후 침례교회, 한국그리스도의교회, 순복음교회, 구세군교회 등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 땅위에 세워진 처음 교회역사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알림으로써 당시 우리 선진들의 뜨거운 영성,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이웃사랑 정신이 원주지방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마지막 셋째로, 일부 양반 계층 자제들만이 ‘서당’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던 때에 한국에 온 아펜젤러 선교사는 고종으로부터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는 학교 이름을 하사받았다. 이후 원주지방에 온 선교사들도 복음 전파와 함께 아동들

12) 원주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원주제일교회100년사』, 237쪽.

13) 여기서 원주지방은 선교부 지방을 의미하며 원주·횡성·평창·영월·정선·강릉·삼척·울진·평해·단양·제천·여주를 포함한다.

14) 리진만, 『매서인은 교회 설립의 선구자였다』, 존프로세스, 237쪽.



과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문호를 넓혔다. 강원도 최초 설립된 ‘정신유치원’과 여러 교회에서 운영했던 ‘매일학교’, 교회학교, 여학교, 중등학교 그리고 성경학교와 사경회 등의 정신이 활성화되기를 원한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닫혀 있는 우리 이웃들과의 담을 헐고 우리 교회들이 감당했던 자유·평등교육, 평생교육을 통해 우리 교회가 계속해 나아가야 할 선교적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 논고 2. 원주지방 첫 근대병원 서미감병원

안성구 일산사료전시관장

### I. 설립 배경·과정

1910년, 미국 북감리회 해외선교부는 한국 선교 25주년 기념 모금운동(The Korea Quarto-Centennial Campaign)을 벌이고 있었다. 존스 목사는 한국 교회 상황을 소개하며, 선교사와 선교비 지원을 호소하였다. 그는 교육 선교 및 의료 선교의 필요성을 설명한 안내서를 미국 교회에 배포하였다. 서울, 평양, 영변, 해주, 공주에 이어 원주에 병원 설립을 강조하였다.

“원주는 강원도의 남쪽 반을 차지하는 중심 도시로서 한국의 동해와 연결된다. 우리는 그곳에 선교 기지를 설치할 예정이며, 한국에 있는 선교부 중에서 가장 멀고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지역 인구는 40만 명이며, 선교 병원은 지역의 유일한 근대식 의료기관이 될 것이다. 진료실·수술실·입원실을 갖춘 작은 병원을 지으려 하는데, 비용은 5천 달러 정도 필요하다. 선교지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이곳에 세우려는 병원에 누가 먼저 기회를 잡을 것인가?”

1910년 7월, 뉴욕의 존스에게 앤더슨(A.G. Anderson)은 선교사 지원 편지를 보냈다. 1910년 9월, 한국 선교사로 임명된 앤더슨은 동년 12월 6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였고, 1911년 1월 4일에 한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서울에 도착한 앤더슨은 곧바로 원주로 내려가지 못했다. 선교사 주택뿐만 아니라 병원 설립 기금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앤더슨 부부는 서울 정동 선교부에서 어학 공부를 시작하였다. 1911년 4월, 원주지방 선교 관리 선교사 노블(WA Noble)과 함께 원주를 처음 방문하였다. 춘천을 거쳐 횡성 및 원주 구역회(계삭회)에 참석하였다.

병원 부지(원주군 본부면 상동리 388)를 결정한 앤더슨은 원주에서 첫 번째 환자를 진료하였다. 시설과 장비가 없어 치료하지 못했지만, 앤더슨은 눈병을 앓고 있는 소년 환자를 처음으로 진료하였다.

“우리가 선교부를 세우기로 예정한 원주의 스웨덴 감리회 기념병원(Swedish Methodist Memorial Hospital)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감리교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번 받은 편지에 의하면 500달러가 처음으로 약속되었고, 이전에 500달러 예정된 것이 있으므로 현재 1,000달러가 모금되었습니다. 추가로 원주 병원을 위해 4,000달러를 모금할 예정입니다. 40만 인구의 원주 지역은 전적으로 감리회 구역입니다. 지금까지 서양인 또는 한국인 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원주에 선교부를 설치하고 병원을 세운다면 더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해리스(M.C. Harris) 감독은 원주에 세워질 병원을 ‘스웨덴 감리교 기념병원’으로 명명하였다. 서미감병원의 ‘서’(瑞)



는 스웨덴을 지칭하는 ‘서전’(瑞典), ‘미감’(美監)은 ‘미감리회’(美監理會)의 준말이었다. 미국에 있는 스웨덴 감리교회 교인이 세워준 병원이라는 뜻이다.

앤더슨은 여름 장마철이 끝나면 원주에 내려가 주택과 병원 건축을 준비하려 하였지만, 노블 감리사의 건강 악화와 자금 문제로 시행하지 못했다. 1911년 11월에 건강을 회복한 노블은 중국인 건축가 해리 창[Harry Chang, 장시영(張時莢)은 중국인이며, 서울역 앞에 신축한 세브란스병원 시공]의 직원과 함께 공사 시기, 건축 자재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앤더슨은 서울에 머물러 어학 공부를 하면서 장로회·감리회 연합으로 운영하는 세브란스병원과 세브란스의학교 정규 교수 요원으로 참여하였다. 초교파 선교사 잡지 <The Korea Mission Field>에 의하면 연합 사업의 단결을 보여주는 또 다른 승리라고 표현하였다. 앤더슨(A.G. Anderson)은 세브란스병원을 통해 초교파 연합과 협력을 경험하였다. 앤더슨의 궁극적 관심과 목표는 원주에 병원과 선교부를 개설하는 것이었다.

그는 1912년 3월 뉴욕 브룩클린에서 개최된 스웨덴 동부연회(Eastern Swedish Conference) 회원에게 두 차례의 원주 방문 결과를 보고하였다. 원주 지역 관리가 병원 설립을 요청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을 부탁하였다. 미국 북감리회 시카고 연회 감독이며, 한국을 방문했던 맥도웰(William F. McDowell) 감독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그는 자신에게 한국과 원주를 소개했던 뉴욕의 존스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연회에서 병원 계획을 소개하고 후원자를 찾아 줄 것을 간청하였다. 1912년 봄, 미국으로부터 1,500달러 선교비가 모아졌다는 연락을 받고 연말 완공을 목표로 원주 선교부 언덕에 사택 공사를 시작하였다. 1912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미감리회 조선연회에서 노블 목사는 “앤더슨 선교사 사택은 건축 계약자의 손에 달려 있다. 금년 말까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시카고와 스웨덴 연회 후원으로 병원 건축도 이루어질 것이다. 여선교사 사택(편집자 주: WFMS, 해외여성선교회 사택은 1918년 현 YWCA 부지에 건립)도 세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하였다.

앤더슨이 1년 동안 평양 기흥병원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택 및 병원 건축은 예상대로 되지 않았지만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1912년 봄부터 시작된 사택 공사는 가을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1913년 봄에 끝났다.

1913년 봄부터 병원 건축을 시작했다. 건축가 류(Lew)와 공사 계약을 맺었고, 건축 분야에 조예가 깊은 성서공회 베크(S.A. Beck, 1899~1941년까지 사역하였고, 미국 성서공회 한국지부 담당) 선교사가 내려와 현장 감독을 맡았다. 평양 사역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앤더슨은 원주를 3차례 방문하였다(1911년 4월, 1912년 1월, 1913년 5월).

## II. 병원 설립

1912년 3월 5일, 서울 상동교회에서 개최된 제5회 연회에서 앤더슨은 원주 병원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지연되었던 원주 선교부 사택 건축은 1913년 6월에 끝났다. 그러나 장마에 의해 앤더슨 가족은 8월 27일에 원주로 이주하였다. 앤더슨은 원주에 거주하는 첫 번째 선교사라는 명예(Honor of being the first missionaries to reside in Wonju)라고 표현하였다.

1913년 5월에 병원 기공식이 시작되었다. 7월 15일, 원주지방 감리사 박원백 목사 집례로 정초식을 거행하였다. 동년 11월 15일에 건물을 완공하였다. 봉헌식은 1914년 4월 22일 오후에 거행되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노블(W.A. Noble) 감리

사가 집례한 봉헌식에 선교사 가족 18명을 비롯해서 원주지방 목회자와 교인이 참석하였고, 군수·지역 유지·원주 주둔 일본군 수비대장이 참석하였다.

서미감병원은 원주뿐 아니라 강원도 남부 지역에 설립된 최초 서양식 근대 병원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우리 병원은 1만 스퀘어 평방 지역에 40만이 거주하는 이 지방의 유일한 병원이다.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얼마나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병원이 수많은 사람의 몸만 구할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장차 한국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병원 건물과 병원 사역자들이 사용될 것”이라고 앤더슨 의료선교사는 기록하였다. 서미감병원은 30×40피트의 벽돌 3층 양옥 건물이며, 17병상 규모로 건축에 5,144달러가 소요되었다.

## III. 진료·재정

### 1. 외래·수술·입원·왕진

서미감 병원 의료 사업 실적(1913~1933)							
기간	입원	진료 (왕진포함)	수술	무료 진료(%)	진료 수입	선도부 지원	의료진
1913. 9.~1914. 5.	7	1,042	18	68	\$44.6	—	앤더슨
1914. 5.~1915. 3.	89	2,157	29	70	\$231.6	—	앤더슨
1915. 4.~1916. 3.	65	1,958	34	75	\$200	—	앤더슨
1916. 1.~1916. 12.	119	3,055	84	52	—	—	앤더슨·윤선옥
1918. 9.~1919. 9.	221	4,637	182	—	—	—	앤더슨·윤선옥
1919. 10.~1920. 9.	227	5,604	163	65	¥5,866	¥5,000	앤더슨·윤선옥
1922. 9.	87	3,144	—	—	—	—	윤선옥
1925. 2.~1925. 6.	—	2,487	12	—	¥694.2	—	맹만수·안사영
1927	41	7,010	—	—	—	—	맹만수·안사영·이은계
1928	71	3,657	74	—	¥2,460	¥3,789	맹만수·이은계
1928. 6.~1929. 5.	97	369	—	—	¥4,579	—	이은계
1931~1933	—	800	—	—	—	—	김봉열

— : 기록이 없거나 누락된 상태

### 2. 무료 진료

앤더슨의 보고서와 기타 자료(미감리회 조선 연회록, Annual Report of MEC 등)에 의하면 서미감병원의 무료 진료 환자는 52%~75%를 차지하였다. 타 선교 병원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 3. 재정

선교부 지원금 및 미국 스웨덴 신도 기부금, 병원 진료 수입으로 병원이 운영되었다. 선교사 급여는 선교부에서 지급하였으므로 병원 예산과 무관하였다. 초기에는 한국인 또는 한국 교회의 헌금이 거의 없었으나, 1910년 후반부터 기독교 병원을 위한 헌금이 시작되었다.

무료 진료를 늘리면서 자립 재정을 이룩하기 위해 원주 지역의 교회에서 정기적인 기부(부활절 특별 헌금)가 있었다. 무료 진료를 의료 선교의 핵심으로 간주한 서미감병원은 어려운 재정 문제를 극복해야 했다. 서미감병원은 감리회의 타 병원 또는 타 기관에 비하여 진료 환자·수술·입원이 낮았으며, 무료 진료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병원의 재정 자립도가 문제가 되었다.

## IV. 예방 의료

앤더슨, 맥마니스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진료 외에도 한국인 의사(이은계)는 남녀 대사경회 때에 가정 위생과 영아 양육법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간호사는 산모의 위생, 영아 양육에 필수적인 청결법, 위생법을 교육하였다.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10일 이상 방문하여 산모와 영아 보건 관리에 대한 시범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역민에게 위생 관념이 생겼으므로 예방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사람이 생겼다고 기록하였다. 맥마니스의 아내는 공중 보건과 유아 복지 사업에 헌신하였다.

## V. 근무자 명단

1910년, 한국 선교 25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는 원주에 병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1913년 11월, 미국으로 이주한 스웨덴 교인의 기금으로 서미감병원(Swedish methodist hospital)을 설립하였다. 2명의 의료 선교사(A.G. Anderson, S.E. McManis)가 병원 진료를 하였다. 의료선교사와 함께 또는 부재시에 세브란스의전 출신 의사 4명(안사영, 윤선옥, 이은계, 김봉렬)이 진료를 담당하였다.

### 1. 보조 의료인

서미감병원 진료에 참여한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 가족은 5명이었다(앤더슨, 맥마니스 의사 제외). 레퍼트(Roy R. Reppert) 선교사는 1908년 Nellie Morgan과 미국에서 결혼한 이후에 1909년부터 서울에서 선교사(창천교회 등)로 사역하였다. 1913년 10월 8일, 원주에 도착한 레퍼트 부부는 앤더슨 사택에서 함께 지냈다. 의사는 아니지만 마취 기술이 뛰어나서 각종 수술에 참여하였다.

피터슨(H.F. Peterson)은 앤더슨의 아내이며, Minneapolis Business College 졸업 후에 의료 선교를 돕기 위해 간호사

교육을 받고 내한하였다. 병원 개원 이전에 사택에서 환자 진료에 협조하였다(1913~1920년).

왈라스(M.E. Wallace)는 맥마니스의 아내이며, 간호대학(Christ Hospital School of Nurse)을 졸업(1924년)하였다. 원주에서 유아 복지, 공중 보건 교육에 헌신하였다(1925~1929년).

1914년의 앤더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 조수 김영석 및 간호사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진료가 수월해졌다고 기록하였다.

### 2. 병원 관리인

앤더슨 선교사의 평양 기흥병원 이동, 윤선옥 원주의원 개원에 의해 공석이 된 자리에 김용준(金龍駿)이 근무하였다(1922년).

노블(W.A. Noble)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 뿐만 아니라 한국인 의사가 없는 1932년부터 병원이 폐쇄될 때까지 병원 관리를 담당하였다.

## VI. 진료·의료 선교 외에 어떤 일을 하였을까?

앤더슨은 목회자 역할(환자 설교 및 주일학교 교장)을 담당하였다. 원주에 남녀 공학의 고등 보통학교[의정(義貞)학교]가 설립되었으므로 교육에 참여하였다(교장: 박원백 목사). 1918년 6월, 방기순 목사 후임으로 제5대 원주읍교회 담임자 조운여 전도사가 부임하였다. 조 전도사는 안수를 받지 못하였으나, 앤더슨은 정식 집사목사 안수를 받은 연회원 이므로 임시로 직분(원주읍 및 문막교회, 3·1운동)을 대행하였다.

1922년 7월 27일에 게재된 동아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서미감병원(김용준 원장)은 사회 사업(양로원 건립 기금 운동)을 펼쳤다. 8만원의 건축비, 10만원의 사업비는 화장품 제조소, 도서관, 인쇄소 등에 사용하였다. 그 외에 청소년 계몽 활동, 강연회, 음악회, 영어 교육 등을 개최하여 원주민과 함께 하는 복음·의료 사업을 진행하였다.

안사영은 1925년 10월에 엡윗 청년회를 지도하였고, 신간회(원주지부) 창립에 관여하였다(1927년). 그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 운동을 펼쳤다.

## VII. 서미감병원 폐쇄/원주연합기독병원 탄생

서미감병원의 의료 선교는 중단(1933년)되었으나, 1930년대 중반에 활동한 여선교사(4명)의 헌신은 지속되었다. 모류의(Louis Ogilvy, 모리스 부인), 미스 마커(Jessie Marker), 미스 레어드(Esther J. Laird, 나애시덕), 미스 번영(Elsie N. Banning, 潘英) 선교사는 원주읍교회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을 순회하면서 영아 진찰, 영아 교육, 어머니회, 소녀 구락부, 야학, 성경반을 인도하였다. 1935년, 오종실 전도사는 보건 사업 임무를 맡아 원주 지역에 파송되었다. 제천, 충주, 원주에서 영아부를 조직하였다.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양육 및 보건 위생에 헌신하였다.



1930년 초·중반부터 시작된 신사 참배, 동방 요배, 창씨 개명 등의 일제 탄압은 극도에 달하였으므로 대부분의 선교사는 1940년 11월에 제물포, 부산항에서 여객선(SS Mariposa, SS Monterey)을 이용하여 한국을 떠났다.

해방과 함께 변호덕(M.O. Burckholder), 도익서(C.D. Stokes, 都益瑞), 모세득, 나애시덕 선교사가 원주로 돌아왔다. 모세득(S.M. Moore)은 Methodist rural center를 건립하였다. 1926~1940년 및 1947~1950년까지 원주에 근무한 나애시덕 선교사(E.J. Laird, 나부인)는 기존의 사회 사업 방식을 탈피하고 서민과 함께하였다. 1947년, 기독교 사회 봉사회관을 회수하였다. 이동 진료차를 이용하여 의료 및 선교를 지속하였다(Mobile medical work). 선교뿐만 아니라 병원 재건립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해방이 되었으나 병원의 재개원이 늦어진 이유는 교회의 내부사정으로 추정된다. 1946년 4월 5일, 일제에 의해 탄압(신사 참배, 창씨 개명 등)에 순응한 교역자(재건파) 및 복흥파(일제에 굴복하였으나 교회를 사수한 교역자)의 내분이 시작되었다. 4년이 경과한 1949년 4월 26일에 분란이 일단락되었다.

1950년 5월, 감리회 연회에서 지방 선교사의 원주 파송을 결정하였다. 임무는 다음과 같다(도익서, 변호덕 : 지방 전도 사업, 스펜드로 : 보건 사업, 모세득 : 지방 농촌 사업, 레어드(나애시덕) : 사회 사업, 변미정(R. Cook) : 유치원 사업).

새싹을 키우려던 노력과 희망은 6·25 전쟁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다.

원주읍교회 이명구 감리사(15대 담임자, 1949~1956년)는 부산에서 개최된 임시 총회(1951. 11. 1)에서 총리원 이사로 피선되었다. 이명구 감리사는 1951년 11월 18일에 원주로 복귀하였으나, 스웨덴 출신의 미국 북감리회 교인 협조로 건립된 예배당, 해외여성선교회 건물 및 서미감병원은 잿더미로 변하였다.

1952년 1월 2일, 이명구 감리사는 교회 복구를 위한 신청서를 부산 총리원에 제출 및 1952년 3월 25일 원주읍교회에서 원주지방 교역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기독교 병원 건립을 위한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이사장(이명구) 및 6명의 이사(장인덕, 김양환, 전연득, 이창호, 이은수, 안의사)를 임명했다.

1952년, 총리원은 인천, 천안, 강화도에 기독교 병원을 설립하였으며, 원주·대전 지역에 병원 설립을 검토하였다. 1953년 7월, 브럼보(T.T. Brumbaugh) 박사(미국 감리회 선교부 동양 총무)가 원주를 방문하였고, 재건 계획을 파악하고 귀국하였다.

1954년, 미국 감리회 선교부 소속(1930년 한국에서 미국 북·남 감리회는 조선 감리회 및 미국은 1939년에 통합됨) 주디(R. Judy) 목사가 원주에 부임하였다. 주디 목사는 토지 환수, 원주감리교회 재건·발전 뿐만 아니라 병원 재개원에 관여하였다.

38,000명의 선교 부지가 있었던 미국 감리회는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부에 연합 병원 건립을 제안하였으며, 합의하였다(1955~1957년). 이후에 기공식(1957년 11월 15일), 봉헌식(1959년 10월 3일), 개원식(1959년 11월 7일)을 거행하였다. 76명의 인력, 50병상 규모의 원주연합기독교병원이 탄생하였다(이사장 : 모레리 / 병원장 : 문창모).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서미감병원의 의료·복음 선교 정신이 계승되고 있다! \*

## 논고 3. 원주지방 최초의 교회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성구 명예교수(피부과)  
윤종원 부장(구매관재팀)\*

### I. 개요

한국 기독교 역사는 1882년 5월 22일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면서 시작되었다. 아더(Chester Alan Arthur) 미국 대통령은 루시우스 푸트(Lucius H. Foote) 장군을 초대 조선 미국 특명 전권 대사로 임명하였고, 1883년 5월 13일에 부임하였다. 푸트는 태극기가 처음으로 게양된 모노캐시호를 타고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개화파 대표 민영익과 10명의 수행원(유길준, 홍영식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보빙사, 報聘使: 답례로 방문하는 사신)은 1883년 7월 16일에 제물포를 떠났다. 사절단은 워싱턴에서 미국 북감리회 소속의 존 가우처(John F. Goucher) 박사(볼티모어 여자대학 학장)를 만났다. 그는 조선 선교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5,000달러를 미국 북감리회 해외 선교부에 기부하였다. 가우처는 중국·일본 선교 개척자 로버트 매클레이(Robert S. Maclay, 미국 북감리회)의 파송을 요청하였다. 1884년 6월 24일에 내한한 매클레이는 김옥균과 친분이 있었으므로 고종 황제에게 학교 설립과 의료 사업을 허락받았다(1884년 7월 3일). 1885년 3월 31일, 파울러(Charles H. Fowler, 1832~1909) 감독은 조선 선교부를 조직하였고, 매클레이를 관리 책임자,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를 현지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아펜젤러 부부는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미국 북장로회)와 함께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도착하였다(1885년 4월 15일). 미국 북감리회 의료 선교사 스크랜튼(William B. Scranton)은 1885년 5월 3일에 입국하였다. 의료 사업은 미국 북장로회 알렌(Horace Newton Allen, 미국 공사관 의사로 1884년 입국)의 제중원(1885년) 및 스크랜튼에 의해 시병원(1886년), 보구녀관(1887년)이 건립되었으나, 선교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후에 1886년 고아원 설립, 1888년 배재학당, 1888년 인쇄소, 출판·신문 발간(삼문출판사, 독립신문, 협성회보 등) 등의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언더우드(1887년), 아펜젤러(1887년)는 북한 지역으로 순회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으나, 선교 금지령이 내려진 당시의 조선은 암울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1890년 이후에 정부의 간섭이 완화되었으므로 전도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선교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 II. 원주 지역 초창기 선교

\* <논고 2. 원주지방 첫 근대병원 서미감병원> 내용은 『원주의료·복음선교(1)』 내용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 안성구 명예교수와 윤종원 부장은 『원주의료·복음선교(1)』의 공동 저자이다.



## 1. 원주에 선교의 문이 열린다(1889년)

1887년, 서울 정동에 학교(배재학당)와 교회(정동교회) 설립 및 선교 사역을 시작한 아펜젤러는 1887년 4월 13일 나귀를 타고 선교지 평양을 방문, 이후 수차례 지방 선교여행을 계속하였다.

원주를 처음 방문한 외국인 선교사는 미국 북감리회 소속의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와 존스(Geroge Heber Jones)이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9년 8월 16일, 1년 전에 내한한 존스와 함께 원주, 충주,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탐방 여행을 시도하였다. 두 선교사는 8월 19일 늦은 오후 원주읍 주민들과 관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원주에 도착해 객사(관사, 학성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원주목사 이철우(李徹愚, 재임: 고종 26~27, 1889~1890)와 강원관찰사 정태호(鄭泰好, 고종 23~27, 1886~1890)의 집무실을 예방해 그들의 방문 목적과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교 활동에 대해 강원도 최고행정 책임자에게 전하며 오랫동안 담혀있던 원주지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다.

강원도 수부(首府)였던 원주 지역은 토착 전도자(구연영, 장춘명)에 의해 1890년대 후반부터 원주읍 외곽에서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천 출신 장춘명(張春明) 및 경기도 광주 출신 구연영(具然英, 차남 구성서 목사는 원주연합기독병원 건축위원이며, 서미감병원 원목 역할을 담당함)은 을미의병(1895년) 때 이천 지역 의병으로 참가하였으며, 1897년에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는 미국 북감리회 권서(勸書, 매서인)이며, 성경 및 관련 자료를 판매하거나 보급하였으며, 경기도 광주·이천·여주를 거점으로 순회하며 전도하였다. 미국 북감리회 소속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주와 이천 지역에서 활동하던 토착 전도자(문경호, 장춘명 권사)가 순회 전도하였고, 원주읍 인근 지역(신대천, 새터, 우마니, 력골)에 국한되었다.

미국 북감리회보다 10년 늦게 한국 선교를 시작한 미국 남감리회는 서울에서 개최된 남감리회 조선선교회 1차 연회(1897년, 12월)에서 강원도 선교를 결정하였다.

윤성근 토착 전도자(권서)가 강원도 김화, 철원에서 활동하였다. 1900년부터 무스(J.R. Moose) 선교사와 토착 전도자(이덕수)가 춘천에 거점을 확보하고 강원도 지역 선교를 주관하였다.

## 2. 미국 북장로회 선교 지역으로 이관된 원주 지역(1907년)

원주읍교회는 1907년 가을부터 미국 북장로회 선교 지역으로 이관되었다. 지역 분할 협정(교계예양)에 의한 결과였다. 미국 북장로회는 1890년대 말부터 서울 승동교회를 담임하던 웰본(A.G. Welbon, 吳越番)과 무어(S.F. Moore) 선교사가 관리하던 권서에 의해 경기 북부와 강원도 지역의 복음을 담당하였다. 1900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철원읍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1902년, 철원을 거점으로 시작된 강원도 선교에 의해 철원읍 외에 11개 및 1903년 18개, 1907년 54개 지역 교회가 설립되었다. 미국 북장로회 강원도 선교 거점(철원)은 미국 남감리회 소속의 강원도 북부 선교 거점이었다. 두 선교회의 선교 중첩에 의한 마찰은 불가피했다. 1907년, 미국 남감리회와 미국 북장로회는 철원을 미국 남감리회, 원주를 미국 북장로회 구역으로 결정하였다. 클라크(C.A. Clark, 郭安連), 웰본 선교사가 순회 선교를 담당하였다. 선교회 결정에 따라 철원에서 원주로 자리를 옮긴 웰본은 선교 기지(mission station)를 개설하였다. 1909년 봄, 토착 전도자 김

영옥(金永玉)과 엄응삼(嚴應三)의 주선으로 20에이커(2만여 평)를 구입하여 선교부 기지로 사용하였다. 당시의 교인은 15명 정도였다.

## 3. 미국 북감리회 선교 지역으로 변경된 원주(1909년)

1909년 9월, 미국 북장로회·미국 북감리회·미국 남감리회 선교 지역 분할 협정에 의해 미국 북장로회는 강원도 지역에서 철수하였다. 한국 선교 책임자 해리스(M.C. Harris) 감독의 강력한 항의를 장로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 이남 지역의 장로회 선교 구역은 매우 넓고, 감리회 선교 지역은 협소하므로 선교 대상 인구는 적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미국 북감리회 한국 선교 책임자(일본 주재 해리스 감독)는 장로회에 항의서를 제출하였다. 장로회 선교 대상자는 3,690,075명이지만, 감리회 선교 대상자는 1,689,766명이므로 장로회는 3,490,109명으로 줄이고, 감리회 선교 대상자 수는 2,060,109명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감리회는 충북 일대의 선교를 개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북장로회가 동의하였으므로, 미국 북감리회와 미국 남감리회가 강원도 선교를 담당하였다.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강릉, 삼척, 울진, 평해 등의 강원도 남부 지역은 미국 북감리회에서 맡았다.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통천, 이천 등의 강원도 북부 지역은 미국 남감리회에서 담당하였다. 미국 북감리회는 원주, 미국 남감리회는 춘천에 선교 기지를 설치하여 강원도 선교를 양분하였다. 협정에 따라 미국 북장로회 웰본은 원주를 미국 북감리회 선교회에 이관하였고, 경북 안동으로 이동하였다.

미국 북감리회 선교회는 미국 북장로회에서 마련한 2만여 평의 선교부지를 1,200달러(2,400원)로 인수하였다. 노블(W.A. Noble, 魯普乙) 선교사가 선교 연회에 보고한 내용이다(Annual Report of MEC, 1911, p203~204). “원주에서 우리의 새로운 선교 부지는 이 지역을 담당했던 장로회 선교부에서 구입했던 것을 이양받았다. 가격은 2,400원(1,200불) 지불했다. 이 부지는 필요한 사업을 채워 주기에 넉넉했고, 여성들의 활동 장소로도 매우 좋다”라고 기록하였다. 1909년, 미국 북감리회로 이양된 당시의 강원 남부 지역의 미국 북장로회 교회는 40여 곳이었다. 교인은 세례 입교인 69명, 학습인 75명, 원입인을 포함하여 6백 명이었다.

원주는 2년 만에 감리회 선교 구역이 되었다. 미국 남감리회 → 미국 북장로회 → 미국 북감리회로 선교 주체가 바뀌었다. 이런 변화는 원주 교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가 원주 선교를 담당한 1909년 이후에 선교가 꾸준히 추진되었다(선교 관리 선교사 데밍, 한국인 전도사 권신일). 그러나 원주를 새 선교지로 이양받은 미국 북감리회는 원주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다. 미국 북장로회에서 인수받을 때 410명이었던 원주지방 교인이 2년(1911년) 후에 3,113명으로 증가하였다. 1911년, 미국 북감리회(미감리회 조선연회)는 원주지방회를 결성하였고, 박원백(朴元百) 목사를 원주지방 초대 감리사로 파송하였다. 노블 선교사가 선교 관리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원주지방 감리사 박원백 목사는 원주읍에서 시작하여 여주, 제천, 횡성, 평창으로 이어지는 영서 지방 및 강릉, 속초, 울진을 포함한 영동 지방까지 전도하였다. 동해안 선교는 울릉도까지 확산되었다.

박원백 목사의 지방 목회와 전도 구심점은 원주읍교회였다. 박원백 목사는 지방 순회를 나가지 않으면, 원주읍교회 목회에 전념하였다. 1909년, 10여 명에 불과했던 원주읍교회 교인이 1백 명을 넘었다. 4.5칸의 초가집 예배당이 좁게 되었다.



1914년, 원주지방 선교 관리 선교사 노블 선교사는 연회에서 원주읍교회당 건축을 제안하였다. 원주읍교회는 강신화 목사의 활동으로 원주군 상동리(일산동 114번지) 1,200평을 김신애 여사(남용우 권사 조모)로부터 기증받았다. 원주읍교회 교인의 헌금 및 선교부(스웨덴 감리회)의 지원(2,918달러)을 받아 1916년 상동리에 80평 규모의 2층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 4. 파송 선교사

1909년, 교계예양(편집자 주: 선교지 분할 협정)에 의해 원주지역은 미국 북감리회 선교 구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선교기지에 거주하는 선교사 파송은 없었다. 그러나 경성(서울)에 근무하면서 1년에 2~3회 원주를 방문하는 선교 관리 선교사(missionary in-charge)를 임명하였다. 데밍, 베크, 노블 선교사에 의해 1916년까지 선교를 담당하였다.

1913년, 서미감병원 건립과 함께 앤더슨은 원주에 거주하는 첫 번째 선교사이며, 복음 선교를 확산시켰다. 1913~1915년까지 순행 전도사 레퍼트, 동석기가 선교 사역을 진행하였다. 1917년, 모리스는 원주에 거주하면서 강릉·이천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 감리사로 활동하였다. 칼슨 순행 전도사가 1924~1927년까지 근무하였다. 1927년 모리스 지방 감리사가 사망하였고, 노블 선교사는 선교 공백 및 서미감병원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1933년 은퇴할 때까지 원주지역을 맡았다. 1929~1938년까지 켄센 목사가 순행 전도사로 사역하였고, 모류의(모리스 선교사 아내)는 일제에 의한 강제 추방(1940년) 이전에 서리 목사뿐만 아니라 유치원, 방언 공부(편집자 주: 영어교육) 등에 온 힘을 더하였다.

원주읍교회 부근에 건립(1916년)된 해외여(성)선교회 지부 건물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파송된 미혼 여성 선교사는 1918년부터 숙소(현재 YWCA 부지)에 거주하면서 복음 전도 외에 교육 선교(유치원), 영유아 교육, 문화 사업 등을 펼쳤다. 힐만, 밀러, 스내벨리, 해링턴, 트리셀, 샤프, 베라, 프레이, 번영, 나에시덕, 모세득, 마커 등에 의한 원주 선교가 가속되었다.

1930년대 초·중반에 시작된 신사 참배, 동방 요배, 창씨 개명에 순응하지 않으면 교회·학교·병원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 2차 세계 대전 발발과 함께 일제 탄압은 극도에 달하였고, 대부분의 선교사는 1940년 11월에 제물포, 부산항에서 여객선을 이용하여 한국을 떠났다.

기독교 신문과 회보(1942년) 및 모든 교단은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통폐합 되었다(1945년). 해방~6.25 전쟁 이전의 파송 선교사 활동은 서미감병원을 참조하라.

### Ⅲ. 8.15 해방 이전 원주에 설립된 초기 교회들

#### 1. 원주읍교회 설립(1905년, 미국 남감리회)

1905년 4월 15일, 초장(일산동)에서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 무스(J.R. Moose, 茂雅各, 무야곱) 목사의 인도로 장의원 권

사 및 장서환·한치선·김봉규·안인혁 등이 첫 예배를 드렸다. 이후에 한치선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원주읍교회는 선교부 보조를 받아 상동리(현 일산동) 115번지의 초가 한 채(4칸 반)를 구입하여 예배 처소를 마련하였다. 1대 순회 선교사 무스 목사 및 5~6인의 신도에 의해 원주읍교회는 점차 부흥되었다. 1906년 6월 2일, 강원도 남부 지역 50여 교회 중에서 35개 교회 임원 120명이 원주읍교회에 모여 춘천 구역회를 개최하였다. 세례받은 원주읍교회 교인은 20명이었다.

2대 순회 선교사는 콜리어(C.T. Collyer, 高永復)였다. 1906년 후반, 한국인 보조자(주한명 전도사, 조사/helper)와 함께 춘천 지역으로 파송되었고, 강원도 영서 지역을 관리하였다. 원주읍교회는 콜리어 선교사와 주한명 전도사가 담당하였다. 1906년, 한응수(한명순 권사 부친), 장효순(장기주 부친), 윤만영, 엄영문, 김용덕 등의 신자에 의해 교회는 점차 부흥되어 갔다. 김용덕은 원주읍교회가 배출한 첫 번째 목사이다. 콜리어 선교사의 보고서이다.

“이 구역에 3개의 도(道, 편집자 주: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에 12개 순회 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체로 지형이 울퉁불퉁하고 큰 도시는 없지만 인구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순회 구역에서 제일 큰 곳은 1천 가구가 사는 원주이며, 다음은 원주보다 몇 백 가구가 적은 홍천, 제천입니다. 춘천은 인구 백여 가구가 사는 작은 도시이며, 도 내에 75개의 기도처가 조직되어 있습니다(C.T. Collyer, Minutes Meeting of MECS, 1905, p.37).”

1907년 선교 연회에서 춘천 선교기지(mission station) 개설 및 무스를 개척 선교사로 임명하였다. 1909년, 10여 명에 불과했던 신도가 100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초가집 예배당(4칸반)은 매우 협소하였다. 1914년, 노블(W.A. Noble, 원주지방 선교 관리 선교사) 선교사는 연회에서 교회당 신축을 제안하였다. 강신화 목사의 활동으로 원주군 상동리(일산동 114번지) 1,200평을 기증받았다(남용우 권사 조모 김신애).

건축 기금은 선교부(스웨덴 출신 미국 북감리회 교인) 지원(2,918달러)을 받아 2층 예배당을 1916년에 건립하게 되었다.

#### 2. 문막교회

문막교회 창립을 알리는 최초의 기록은 1918년 6월 5일 자 <기독신보>에 “우리 교회 권사 이제삼 씨가 본 군 흥원창으로부터 오셔서 이곳에 교회를 설립하여 5~6년간에 교우가 5~60명에 이르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기독신보> 기사가 나오기 10년 전 『the Korea Mission Field』 1908년 12월호에는 원주읍교회에서 완볼드 선교사가 1908년 10월에 주최한 사경회에 문막교회 부인회원들도 참석한 기록을 볼 수 있다. 문막교회의 시작은 문막 섬강 건너편 여주 쪽에서 활동하던 매서인들의 전도에 의한 것이었다. 그 중 구연영과 장춘명 전도인은 여주 점동면 처리교회를 거점으로 사역했고, 1903년부터 한국 남부지방은 북감리교회 스웨어러 선교사가 담당했다.

이렇게 복음이 퍼져가던 시기 함경북도 청진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제삼 권사가 원주군 부론면 흥원창으로 이주해 왔다. 그러다가 1905년 봄, 이제삼 권사는 경제활동이 더 활발한 건동면 문막리 240번지 문막장터 인근에 정착하여 사랑방에 기도처소를 마련하고 문막교회의 시작이 되는 첫 예배를 드렸다.

초가집 예배당에서 창립한 문막교회는 1918년에는 사립 문정학교 열칸 건물을 매입해 2차 예배당으로 사용했으며,



1935년 3월 31일 신흥식 감리사의 주례로 세 번째 예배당 봉헌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당은 노블 선교사의 지원으로 합석제 지붕을 덮고 서양식 유리 창문을 단 현대식 건축물이었다. 1952년 노후화 되고 6.25 전쟁으로 파괴된 예배당을 대신해 송성준 목사를 비롯한 교우들의 기도와 30여 명의 장년 성도들의 헌신과 교단 본부 류형기 감독의 후원으로 네 번째 목조 교회당을 세웠다. 2001년 유준호 목사가 부임한 후 문막교회는 교회 창립 100주년을 한 해 앞둔 2004년 4월 1일 동부연합 권오서 감독 집례하에 7차 예배당 봉헌예배를 드렸다.

문막교회사에 나타난 문막교회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문막교회는 애국하는 교회이다.

문막교회 5대 박종성 전도사(1916~1918)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징역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11대 이병주 전도사(1927~1928)는 3.1운동 당시 연희전문학교 학생회장으로 3.1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1년 2개월의 옥고를 치렀고, 중국 상해로 망명해 태평양회의의 외교후원회, 한국노병회 등의 활동을 하다 1923년 다시 체포되어 2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애국하는 일에 모범을 보였다. 한민우 집사는 1919년 3월 22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으며, 이선실 장로는 상해로 망명해 ‘애국부인회’ 임원으로 활동했고, 김성근 성도는 ‘구국모험단’의 단장이 되어 무장항일투쟁을 결행했다.

문막교회 출신 황덕주 목사는 평양이 공산당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 남하해 대전형무소의 교무과장 형목(刑牧)으로 근무하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고향 문막면 반계리에 계시는 모친을 모시러 왔다가 지방 빨갱이에게 붙잡혀 순교했다.

#### 2) 문막교회는 교육하는 교회이다

1915년 12월 27일 박종성 전도사는 문막구역 첫 번째 단독 파송 담임자로 임명받고, 1917년 함병규 성도와 함께 문막읍 최초의 유치원을 설립했다.

1922년 6월에는 부인강습회반, 1930년부터는 금주운동, 9월부터는 70여명이 참가한 노동야학을 개설했다. 1935년 1월 애플소년회를 조직했으며, 1946년 2월 기독교청년회, 가정여학교, 농민학교, 성경학원까지 개원했다. 1952년 9월 문막가정여학교를 신축했고, 1953년 3월 3일에는 문막복음농민학교 제1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1956년에는 나애시덕 선교사로 부터 재봉틀 2대를 기증받아 이선실 권사가 양재학교를 설립했으며, 1967년에는 의성고등공민학교 교사를 신축했다. 1988년 3월 의성유아원을 개원해 1995년에는 새싹선교원으로 발전시켰다. 최근까지도 성도들의 성경교육을 위해 '벤엘 성서학교·여성경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3) 문막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다.

문막교회는 6.25 전쟁 기간 중 고영수 성도의 주도로 1951년 9월 부론면 법천리 더병말에 부론교회 설립을 주도하였다.

1965년 후용교회를 개척하였으며, 1975년 8월 동화교회를 김영봉 권사의 주도로 문막면 동화리에 개척했다. 1976년 2월 반계2리 마을회관에서 문호교회 창립, 1982년에는 취병리에 흰돌교회를 개척했다. 2005년부터 해외선교를 시작해

중국, 인도, 가나, 북한, 키르기즈스탄, 남아공 지역까지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있다.

### 3. 만종교회

#### 1) 만종교회의 설립

원주제일교회 100년사에 따르면 만종교회는 1914년에 정영현 장로의 인도로 박극렬<sup>1)</sup> 외 10인이 설립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만종교회의 설립은 원주제일교회에서 일어난 신앙적 열정과 복음을 통한 애국활동의 동력이 원주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첫 열매라는 성격이 있다.

만종교회 설립 이후 만종교회의 발전을 이끈 인물은 바로 박극렬(1888-1972) 장로이다. 그는 1888년 10월 7일 원주군 지제면 보통리에서 출생하였고 원주읍교회에 출석하였다. 그러던 중 1914년 박 장로는 자신의 집에서 기도 및 성경공부 집회를 시작하였다. 이 박극렬 장로의 집에서 시작한 가족기도회가 만종교회의 뿌리가 된 것이다.<sup>2)</sup>

그 후 1922년 박극렬 장로는 매년 2가마씩 미곡을 모아 판 돈과 나무를 해서 판 대금으로 초가 10칸 짜리 집을 매입하여 교우 10여 명과 함께 만종리 1010번지에 교회를 설립하였던 것이다. 처음에 설립된 교회의 이름은 운동교회(雲洞敎會)였다.<sup>3)</sup>

처음 세워진 만종교회는 방 6칸 짜리 건물로 이것이 오늘의 만종교회의 토대가 되었다. 당시의 그림이나 사진이 남아 있지 않아서 당시의 정확한 모습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운동교회는 상당히 빠르게 부흥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리회보에 따르면 1931년 5월 5일 운동교회에서 인근 상봉산(上奉山)에 야외기도회를 나간 것을 보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일학교 학생 60여 명이 참가하였고 이 기도회는 전도사 박극렬이 기도회를 인도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sup>4)</sup> 그리고 이창호 선생이 인도한 주일학교 여흥회가 오후에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 무렵의 만종교회는 이 지역에서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였고 지역복음화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 2) 만종교회에서 설립한 배영학원

박극렬 장로는 1928년 학생 45명을 모아 배영학원(培英學院)을 설립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와 민족의식을 가르치는데 주력하였다.<sup>5)</sup>

이 학교가 설립될 당시의 이름은 동명학원(東明學院)이었다. 경위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후에 동명학원은 배영학원으로 그 이름이 알려져 전해 온다.

1) 정확한 이름은 박극렬이다.

2) 『監理會報』, 소화 20년. 1935년 1월 1일자.

3) 박극렬 장로의 묘비에는 만종교회 설립이 1920년으로 되어 있으나 원주제일교회 역사 및 한국감리교회의 기록에 따라 191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監理會報』, 소화 16년. 1931년 6월 10일자.

5) 박극렬 장로의 묘비에는 학교의 이름이 배양학원으로 되어있다. 현재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종교회에서 공식으로 통용되는 배영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후에 학교의 규모가 커지면서 보통학교(초등학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리교회 보고서에도 배영학원을 서당(書堂)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매일학교(Day School)를 부르던 것과 일치하고 있다. 구한국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설립한 학교들은 대중교육의 산실로서 한국 근대화의 교육적 초석을 놓은 역사적 기여를 한 학교제도였다. 만종교회는 이처럼 설립 초기부터 구국과 근대화를 지향하는 지역사회의 거점으로 출발하였던 것이다.

배영학원은 4년제 보통학교로서의 학생들을 교육하여 배출하였다. 그러던 것이 일제 말기에 일제의 천황숭배 강요가 있자 만종교회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이에 만종교회와 배영학원은 일경의 감시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게다가 호저면 인근 지정면에 일본인이 세운 보통학교가 들어서게 되었고<sup>6)</sup> 이에 따라 만종리의 사립 배영학원은 보통학교로서의 위치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총독부에서 설립한 보통학교로 인해 배영학원은 설립 인가 취소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결국 만종리 배영학원은 문을 닫고 원주시내의 보통학교에 병합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신사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평을 받은 만종교회 역시 1940년대의 식민지 한국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결국 교회의 문을 닫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 3) 만종교회의 재건

만종교회의 재건 역시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재건의 노력이 활발해지던 1960년대 중엽에 시작되었다. 감리교 동부연회에 남아있는 만종교회 보고서는 1965년부터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1965년 감리교회 동부연회 만광구역 만종교회의 통계표를 보면 학습인이 남자 3 여자 2명, 입교인이 남자 4 여자 9명으로 성인신자 남자 7명 여자 11명이었다. 일제 말기에 교회 해체의 시대를 거쳐 한국전쟁을 지나고 그야 말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만종교회의 남은 그루터기였다.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게 된 만종교회는 1970년대 들어와 이영애 권사의 신유 집회를 통해 병 고침을 받은 이들이 감사의 표시로 헌금을 하였고 그 헌금을 모아 네 칸짜리 교회당을 지었다. 그 후 최진양 장로는 학성교회의 후원으로 교회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대지 43평에 벽돌기와 20평 짜리 한양 복합식 건물을 짓게 되었다.

### 4) 만종교회의 발전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만종교회는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를 파송 받게 되었고 그 때부터 교회의 안정적 발전이 시작되었다. 지방회에서 만종교회에 공식으로 파송한 교역자는 운영철 전도사이다. 계속해서 권혁구 목사, 전남숙 전도사, 유수풍 목사, 이기우 목사, 정경석 목사, 최현영 목사로 이어졌고 최현영 목사의 뒤를 이어 1991년 10월 만종교회에 부임한 교역자는 정동준 목사이다.

원주 지역에 있는 수 많은 교회 건축물 가운데 만종교회 건축은 교회의 공간 구성이 현대한국 건축물들이 보여주는 실용성을 넘어서 건축가의 종교성 및 종교 이해가 교회 건축에 깊이 반영된 인문학적 종교적 건축물로 소개되고 있다. 지하에 들어선 예배당은 건축가 자신이 말하듯이 겸손과 낮춤을 표현하여 마치 고대의 지하교회인 카타콤을 연상시키

6) 이 국민학교는 간현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게 건축되었다. 건축가 백문기 교수는 낮아진 공간이라는 개념을 만종교회에 적용하여 높아지고 커지려는 현대 개신교회 건축의 경향과는 다른 낮아지는 교회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였다.

정동준 목사의 뒤를 이어 2003년 5월 취임한 정준태 목사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다.<sup>7)</sup>

### 4. 원주성결교회

초기 한국 성결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동양 선교회’와의 관계는 밀접하다. 왜냐하면 성결교회의 모체인 전도관 선교가 동양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동경 성서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한 두 개척자 김상준, 정빈 두 사람에게 의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이다.<sup>8)</sup>

동양 선교회는 카우만(Charles E. Cowman) 부부와 길보른(Earnest A. Kilborne) 씨에 의하여 극동 지역에 선교할 목적으로 세운 선교단체로서, 1901년 일본 동경에 선교회를 두어 선교 사업을 시작하였다.

1907년 5월 2일 김상준, 정빈이 일본 동양성서학원 졸업 후 카우만, 길보른과 함께 귀국하여 서울 종로 염곡(현 무교동)에 작은 집을 임대하여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Oriental Missionary Society Jesus Doctrine Mission Hall)이란 간판을 붙였다. 이것이 한국 성결교회의 ‘복음전도관’의 시초이다.

1910년 동양선교회의 카우만 총재는 전도활동의 구체화를 위해 토마스(John Thomas) 선교사를 한국전도관 감독으로 파송, 1911년 3월 13일에 복음전도관 안에 ‘경성성서학원’을 설립 후 일본 동경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이명직, 이명헌 등 5명의 유학생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목회자 양성과 더불어 교회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오늘의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이 되었다.<sup>9)</sup>

1921년 9월 한국동양선교회는 전국 33처에 전도관이 설립되자 행정기구를 조직하고 명칭을 전도관에서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로 바꾸게 되었다.<sup>10)</sup> 성결교회는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보다 22년이나 지난 후에, 성공회보다는 17년, 침례교회보다는 13년이나 늦게 선교를 시작하였다. 특히 일제 말엽의 교단 해산의 수난 중에서 교단이 재건된 성결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성결교회는 한국인에 의해서 전도가 시작된 교회다.

둘째, 성결교회는 비교파성을 가지고 출발한 ‘복음전도관’이라는 순수한 복음 전도에서 시작되었다.

셋째, 성결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직접 전도를 실천한 교회이다.

넷째, 성결교회는 전도자 양성을 위해서 일찍이 성서학원(聖書學院)을 설립한 교회이다.

다섯째,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전도 표제를 강조하는 교회이다.

여섯째, 교단기관지 『활천(活泉)』을 발행하여 문서 선교에 앞장선 교회이다.

일곱째, 성결교회는 고난의 길을 헤쳐온 가시밭에서 백합화를 피워낸 교회이다.

7) 만종교회 서술 내용은 미간행된 “만종교회 100년사” 원고에서 발췌해 정리한 것임.

8) 강근환, “초기 한국 성결교회에 나타난 선교 정책적 특색”, 신학과 선교 4집(부천:서울신학대학, 1977), 13쪽.

9) 교사대학 2, “성결교회의 교리와 역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교육국, 81쪽.

10) 강근환, “초기 한국 성결교회에 나타난 선교 정책적 특색”, 신학과 선교 4집(부천:서울신학대학, 1977), 22쪽.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결교회가 원주에 설립된 것은 1933년 6월이었다. 성결교회는 1933년 이전부터 한국을 북부지방(함경도) 서부지방(황해도) 중부지방(경기 강원) 호남지방(전라도) 영남지방(경상도) 등 5개 지방으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1933년 4월 서울 아현교회당에서 제1회 중부지방회를 개최하여 경성 동, 경성 서, 수원, 안성, 강원 등 5개 구역으로 분할하고 감찰회장을 두었는데 당시 강원 구역 제1대 감찰회장에 이문현 목사가 피선되었다. 1933년 5월 이문현 목사는 중부지방회를 마치자 동역할 박차경 전도부인과 함께 1개월간 교회 개척 준비를 마친후 6월 원주읍 본부면 상동리 3번지에서 교인 3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원주에서도 원주성결교회(원주제일성결교회 전신)의 문을 열었다.<sup>11)</sup> 이는 원주지역 감리교회 6곳, 읍후동(원주읍교회), 운동(만종교회), 봉현리(금물산면 봉현교회), 문막교회, 흥호리(부론면 월봉동교회), 귀래리(고청교회)에 이어 7번째로 설립되어 성결교회도 착실히 부흥하였다.

1937년(제3대 차창선 목사) 봉산동 왕비석 거리에 초가 7칸을 구입하여 예배 장소를 이전하였다. 그후 일제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자 1941년 3월 제5대 박봉진 담임목사가 투옥 순교 당하였고, 1943년 12월 29일 조선성결교회는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명령을 받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해방후 교회 재건 운동이 일어나 1947년(전덕성 담임목사) 3월 원주읍 원동 45번지 법흥사(일본인의 사찰)를 불하 받아 수리후 예배실로 사용 1953년 3월 제10대 한인업 목사가 부임하여 현 위치에 판자 집 25평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명칭을 원주성결교회에서 원주제일성결교회로 개칭하였다. 이후 1952년 여름에 호저교회(원주성결교회 전신)가 세워지고 이어서 십자군 전도대장이었던 최창도 목사의 전도대가 원주지역 순회시 봉산동 지역에 봉산교회(원주중앙성결교회 전신)를 설립하게 되었다.

## 논고 4. 선교사들이 기록한 원주 이야기

윤종원 장로(원주중앙성결교회)

### I. 시작하며

원주읍교회를 설립한 구한말 미국 남감리회 제이콥 로버트 무스(Jacob Robert Moose, 무아곶) 선교사가 시골 체험기에서 조선의 미래를 여는 열쇠를 마을 교회라고 주장한 이유는 "기독교가 마을 사람들의 삶에 붙여넣고 있는 힘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 교회가 시골 사람들의 교회라는 점과 조선의 대다수 사람들이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나라이며, 기본적으로 시골 사람들은 도시를 오염시키는 악습에 심하게 물들지 않은 좀 더 선량한 사람들이다. 조선의 시골 마을들을 완전히 기독교화하라. 그러면 조선인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sup>

무스 선교사의 눈에 보인 시골 마을 원주 땅의 모습은 1910년대 원주에서 의료선교를 시작한 앤더슨 선교사와 루이스, 모리스, 노블 선교사 등이 원주 땅에 거주하면서 경험한 풍경과 별다른 것이 없는 것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생활상을 기록한 사진 자료가 많지 않지만 원주 땅을 밟은 선교사들의 선교 귀국 보고 자료를 토대로 미국 감리회연합회의 역사 자료를 이용하여 '원주' 풍경(1910년~1940년)을 여행해 본다.

## II. 선교사가 남긴 원주 풍경

### 1. 원주로 오는 길

1889년 8월 19일 원주지방을 처음 방문한 아펜젤러와 존스 선교사의 방문 경로는 서울을 출발해 양평 - 지평 - 고송 - 솔치 고개 - 안창 - 원주로 기술되었으나, 원주지방을 향하는 아펜젤러 일행의 사진은 아쉽게도 볼 수가 없다.<sup>2)</sup>

이번 원주시역사박물관 기획사진전 [그때를 아시나요 2] 주제 사진은 루이스 감독 일행이 원주를 방문하는 길[루이스 감독은 미국 북감리회 조선연회 회장직(1914~1915년)을 담당하였고 1914년 원주지방을 방문]이며, 이 도로는 1912년에 개설된 원주-여주간 도로 중에서 현재 여주군 부평리 샷갯봉 입구 근처의 모습이다.

#### 1) 루이스 감독이 여주 나루를 건너 원주로 향하고 있다.

원주지방의 첫 선교관리 선교사 노블 선교사는 1911년부터 원주지방 선교를 관리하였다. 1914년 루이스 감독은 여주강

11) 원주시기독교연합회, 『원주시독교 100년사』, 94쪽.

1) 제이콥 로버트 무스, 『1900, 조선에 살다』, 쿠톤역사, 319쪽.

2) 문막교회 역사편찬위원회, 『문막교회 117년사』, 58쪽.



을 건너 원주를 방문하였고, 당시 나룻배에 인력거를 싣고 샷샷봉을 넘어 원주로 들어오고 있는 루이스 감독 일행을 노블 선교사가 맞이하는 장면이다.

루이스 감독은 1914년 봄 원주에서 열린 원주지방회에 참석하러 오는 길이었는데 인력거에서 내려 걸어오는 모습을 보아 언덕길을 오르는 운반인을 배려한 모습인 듯하다.

## 2. 선교사의 눈을 통해 바라본 100년 전 원주

100년 전 원주지방의 농경 생활 모습, 길거리 상점, 낫선 문화재 등 고을을 찾아 선교여행 중에 한국 산하와 한국인들의 문화와 풍속, 그리고 관습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촬영한 사진들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사진 자료는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촬영한 사진으로 United Methodist Church의 소장 자료들이다.

### 1) 조선의 농부들은 게으르지 않다.

농경 시절이므로 논농사 풍경을 많이 본 선교사들에게 비친 농촌의 모습들은 일을 하다가 아무 곳에서나 쉬며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통해 ‘게으르다’ 할 수 있다.

시골 농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식사를 한 후 일하러 나간다. 9시 경에 아내가 들판으로 ‘새참’을 들고 나오면, 농부는 이를 먹고 담배를 피운 후 잠시 누워 낮잠을 잔다. 정오에 농부는 집에 돌아가 밥과 김치로 차린 든든한 점심을 먹고 다시 짧은 낮잠을 즐긴다. 농부는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 일하다가 오전과 비슷한 오후 ‘새참’을 들고 한참 담배를 피운 후 일을 시작하여 마음 내킬 때까지 부지런히 일을 계속한다. 결코 게으르지 않았다.

### 2) 농악과 농무를 즐기는 농부들

힘겨운 농사일 가운데 장단을 맞추며 모심기를 하며, 잠시 쉬는 시간에도 낮잠을 자는 사람들 사이로 고수가 흥겨운 노래판을 벌이고 있는 논농사 풍경은 농촌 마을을 지나는 선교사들에게 흥미로운 농촌의 모습들이다.

### 3) 왜 논 농사가 많이 보이는가?

일제 강점기 농정은 식민지 조선을 본국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지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쌀의 수탈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농업 기술 기구의 실험과 연구 역시 벼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조선 주요 식량 작물인 맥류·조에 관련된 시험과 연구를 경시하였다. 결국 우리의 전통 농법과 품종은 압살되었고 밭농사와 축산 등 농업 전반에 대한 균형을 잃고 벼농사 중심으로 단순 영농화 되었다.<sup>3)</sup>

### 4) 만능 재주꾼들로 이루어진 시장 문화

3) 일제의 한국 농업정책사 연구/ 김도형 지음, 한국연구원, 2009.

시장터에는 짐을 옮기는 도구로 사용되는 길마(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해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얹는 기구)를 매단 소들과 주인들이 일을 기다리고 있으며, 무료한 기다림의 시간을 달래주는 길거리 주막 풍경과 옷장수, 농립(여름에 농사일을 할 때 쓰는 밀짚이나 보릿짚 따위로 만든 모자)을 쓴 농부, 해산물 상인, 나무로 만든 커다란 합지박·담뱃대·웅기 등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좌판 등 주로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만능 재주꾼들이 모인 곳이었다.

## 3. 원주에서 살아가기

1917년, 모리스(Chales David Morris, 모리시, 1869~1927)는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품고 원주를 향하였다. 박원백 감리사의 휴직으로 모리스 선교사가 원주지방 감리사로 파송되었다. 16년간 관서지역의 선교에 매진한 모리스는 원주지역 발전에 디딤돌을 놓았다. 1년의 안식년(1923~24년)을 제외하고 10년을 봉사하였다. 1917년에 사택을 건축하였고, 1918년 10월에 완공되었다. 일산사료전시관(구 영빈관) 건물이며, 2017년에 등록 문화재로 등록되었다(701호). 주택 건설 중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건너간 앤더슨 의료 선교사의 사택을 사용하였다. 원주·강릉·이천 지방 감리사로 사역하였다.<sup>4)</sup>

### 1) 원주읍내 건물 풍경들

상점들과 떡메 치는 광경을 보고 있는 모리스 선교사와 일본인이 경영하는 맥주 가게와 사탕 가게가 특이하다. 물레방앗간의 전경과 곡물을 찧는 아낙네 모습, 대장간이 있는 마을 풍경이 선교사의 눈에 들어 왔다. 마을 원로들과 사람들 모습, 마을 공동 빨래터, 장터의 유기상과 지게꾼의 장작더미 가득 실은 땔감 장수들과 짚신 상인, 보부상들의 모습 등 이러한 풍광은 현재 사라져갔지만 바로 어제의 우리 모습이었다.

### 2) 오랜 지배자 토속 신앙

폐사지의 탑과 불상, 서낭당이 있는 마을, 길이 있는 언덕 꼭대기는 어디든지 산신령을 모시는 사당이 있다. 나뭇가지에는 형형색색의 비단과 여러 가지 형질 조각, 종잇조각, 머리카락, 낡은 신, 헌 옷, 혼령들이 좋아할 여러 가지 제물로 가득찬 작은 주머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에 막대한 차질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으로 내려오던 기우제, 원주지방에서는 진흙으로 용 모양을 만들어 토룡기우제를 지내곤 하였는데 선교사들에게는 호기심을 갖기에는 충분하였다.

### 3) 원주의 건물들

원주지방 초대 감리사(1911~1916)를 지낸 박원백 목사는 1908년 미국 북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원주지방회에서 시무하였다. 당시 사택의 모습이다. 1913년 6월에 완공한 앤더슨 선교사 사택 2층에는 1913년 원주에 파송된 레퍼트 선교사 가족이 함께 머물러 있었다. 이어 그해 11월에 완공한 서미감병원은 모두 17병상 규모의 3층(지하1층, 지상2

4) 안성구·윤종원, 『원주 의료·복음 선교(1)』, 482쪽.



층) 건물이었고, 1916년 원주읍교회 건축과 함께 해외여(성)선교회(WFMS) 지부와 1918년 해외여선교회 숙소 건물(현재 YWCA 부지에 건립되었고 원주연합기독병원 초창기 여선교사 뉴먼, 하일러 등이 거주)이 건축되었다.

사진으로 기록을 보존하다보니 조금은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은 1910년부터 1930년 사이의 건축된 건물들이 6.25 전쟁 기간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그 중 남아 있던 앤더슨 선교사 사택과 WFMS(해외여성선교회) 숙소 등은 충분히 보존할 수 있는 건물이었음에도 선택을 잘못하여 영원히 사라져 버린 건물이 되었다.

### III. 선교사가 기록해 남긴 원주 사람들

#### 1. 원주읍교회 사람들과 선교사

\* 강신화 목사 : 원주읍교회 제3대 목사(1914. 6 ~ 1917. 5)로 사역했다.

\* 동석기 전도사 : 1913년 노스웨스턴 게렛신학교(Garrett School of Divinity)를 졸업하였고, 미국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13년 12월 귀국한 동석기는 원주지방 순행 목사로 목회 생활을 시작하였다. 최초의 원주지방회 순회 전도사로 파송 활동한 동석기 전도사는 1926년 「미국 환원운동의 초기 역사」로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데이빗 리스콤(David Lipscomb) 대학 신학부에서 수학하였다. 테네시주 네쉬빌과 알라바마주 몽고메리 등지의 그리스도 교회로부터 선교비 지원을 약속받고 1930년 11월 귀국하였다. 동석기는 고향 북청에서 환원 운동을 전개했으며, 1930년 11월 29일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인 함전그리스도의 교회를 북청에 설립하였다.

\* 레퍼트(Roy R. Reppert) 선교사 : 1908년 Nellie Morgan과 미국에서 결혼한 이후에 1909년부터 서울에서 선교사(창천교회 등)로 사역하였다. 1913년 10월 8일, 원주에 도착한 레퍼트 부부는 앤더슨 사택에서 함께 지냈다. 서미감병원에서 의사는 아니지만 마취 기술이 뛰어나서 각종 수술에 참여하였다.

\* 에스더 레어드(Esther J. Laird, 羅愛施德) 선교사 : 오하이오 웨슬리안대학교와 드류신학교 공부가 끝나자 1925년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뒤, 이듬해 1926년 2월 그녀의 나이 스물여섯 살에 한국 땅을 밟았고, 3월에 대한민국 오지 중 가장 낙후되었던 강원도 원주의 가난과 굶주림으로 허덕이던 민중들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1931년 모류의(모리스 선교사 부인) 선교사와 함께 원주 기독교여자사회관을 창설하여 부녀자 사업과 교육 사업(4H)을 시작하였고, 원주 남산에 결핵요양원을 개설하고 직접 고통 받는 이웃들 속에 들어가 함께 하였고, 그들 속에서 '나부인'으로 불리며 외국선교사의 대명사가 되었다.

\* 안경숙(安瓊淑) 전도부인 : 원주선교부 파송 첫 전도부인으로 강신화 목사와 함께 사역하였다. 개화 초기 당시 한국의 문화와 관습에 의하여 남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1915년 4월, 박원백 감리사의 원주·강릉지방 연회 보고서에 “마커(Miss Marker) 양이 2곳의 성경공부반 개최와 프레이(Miss Frey) 양이 두 명의 전도부인을 보내줬다”라고 기록되었다.<sup>5)</sup> 따라서 원주 선교부에는 이미 1915년에 2명의 전도부인이 사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경숙 전도부인 외의 1명은 원주 서미감병원 앤더슨 의사를 도와 여성 환자를 심방하며 전

도하던 클라라(Clara, 앤더슨 조사의 부인)였다.<sup>6)</sup>

\* 전밀라(全蜜羅) 전도사 : 본처 전도사(전연득)의 딸로 감리교신학교 졸업 직후인 1935년 4월 30일부터 기독교조선감리회 동부연회에서 '전도 부인'으로 임명 받고 원주지방 내 전도 사업과 여선교회 조직·지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55년 3월 13일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지 70년 만에 최초의 여자 목사로 안수 받았다.<sup>7)</sup>

\* 박분조(朴蕡祚) : 문막교회 설립자 이계삼 전도사의 첫째 자부로 원주선교부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원주기독교여관, 지방 여전도사업을 도왔다.<sup>8)</sup>

#### 2. 원주 땅을 밟은 선교사들

\* 아펜젤러(H.G. Appenzeller), 존스(G.H. Jones) 선교사 :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 1889년 8월 원주·충주·대구·부산 순회 전도 여행시 8월 19일 원주 방문

\* 무스(J.R. Moose) 선교사 :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 1905년 원주읍교회 설립(상동리 115번지)

\* 콜리어(C.T. Collyer) 선교사 :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 1906년 원주읍교회 2대 순회 선교사

\* 클라크(C.A. Clark) 선교사 :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 1907년 원주지역 선교관리 선교사

\* 웰본(A.G. Welbon) 선교사 :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 1907년 원주, 철원지역 선교 초석 마련. 1909년 선교 부지용 토지 구입(2만여 평)

\* 해리스(M.C. Harris) 선교사 :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 1904년 한국·일본 선교 감독으로 1908년 조선연회 초대 회장(1908~1912)과 1909년 선교지 분할 협정시 원주지역을 북감리회로 이관. 1916년 까지 한국·일본 감독 역임

\* 데밍(C.S. Deming) 선교사 :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 1909~1911년 원주지방 선교관리 선교사. 1911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 부지 인수(1,200달러)

\* 노블(W.A. Noble) 선교사 :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 1913~1916년 원주지방 선교관리 선교사. 1929~1933년 서미감병원 관리자

\* 베크(S.A. Beck) 선교사 :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 1912년 원주지방 선교관리 선교사. 미국 성서공회 한국지부 운영 앤더슨(A.G. Anderson) 선교사 :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 1912년 3월 원주지역 의료선교사 임명. 서미감병원 개원

\* (1913년 11월 15일, 미국 북감리회 소속 스웨덴 교인 기금)

\* 루이스(W.S. Lewis) 선교사 :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 조선연회(1914~1915) 회장 역임. 1914년 원주지방 방문

\* 웰치(H.G. Welch) 선교사 :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 조선연회(1917~1927) 회장 역임. 1918년 원주지방 방문

\* 모리스(C.D. Morris) 선교사 :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 1917년 원주·강릉·이천 지방 감리사. 원주 지역 선교의 발판 마련. 1918년 10월 사택(일산사료전시관, 등록문화재 701호) 완공

\* 칼슨(C.F. Carlson) 선교사 :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 1923~1927년 원주지방 순행 전도사. 1924년 원주 영어 야학 개설

5) 안성구·윤종원, 『원주 의료·복음 선교(1)』, 569쪽.

6) 문막교회 역사편찬위원회, 『문막교회 117년사』, 402쪽.

7) 8) 문막교회 역사편찬위원회, 『문막교회 117년사』, 384쪽.



\* 젠센(A.K. Jensen) 선교사 :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 1929~1938년 원주지방 순행 전도사, 원주읍교회에 파이프 오르간 설치 후원

\* 스톱스(C.D. Stokes) 선교사 : 미국 감리회 선교부, 1940년 한국 파송, 1947년 재방문시 원주지방 전도 사업 관여, 1954년 목원대학교 설립, 원주연합기독병원 개원식(축사) 참석

\* 피터슨(H.F. Peterson) : 앤더슨 의료 선교사 아내로 선교를 돕기 위해 간호사 교육을 받고 내한(1913~1920), 환자 진료에 협조

\* 오길비(Louise Ogilvy) : 모리스 선교사 아내로 WFMS(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소속 지방 전도 사업과 여학교 유치원 사업에 힘씀, 1916년 정신유치원 원장 역임

\* 해링턴(S.R. Harrington) : WFMS 소속, 모리스 감리사의 1919년 연회보고서에 의하면 질병으로 인하여 여름에 귀국

\* 트리셀(M.V. Trissel) : WFMS 소속, 1922년 원주와 강릉지방회 신도들에게 큰 영향 끼침, 유아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소녀)을 위한 특별 학급 운영

\* 샤프(H. Scharpff) : WFMS 소속, 1921년 원주·이천 지방 전도와 교육 사업 담당

\* 스네블리(G.E. Snavelly 수래복리) : WFMS 소속, 1918년 6월 원주·강릉 지방 성경연구반 지도와 여성교육 헌신, 해 주·이천(1928)에서 근무

\* 프레이(C. Frey) : WFMS 소속, 원주에 전도부인 2명을 파견하여 병원 전도에 협력(1911년 앤더슨 편지 내용)

\* 밀러(L.A. Miller) / 힐만(M.R. Hillman) : WFMS 소속, 원주에 여성 성경반을 운영(1911년 앤더슨 편지 내용)

\* 마커(J.B. Marker) : WFMS 소속, 2개의 성경반 개최(1915년 4월 박원백 감리사 연회보고)

\* 배닝(E.N. Banning) : WFMS 소속, 1929년 내한, 원주에서 교육 사업에 힘쓰다가 1938년 귀국

\* 쿡(R. Cook 변미정) : 버크홀더 선교사 아내, 1938년 2월 철원지방 전도사업, 1940년 10월 귀국하였다가 1947년 재차 내한하여 원주, 강릉, 전도사업, 6.25 전쟁으로 귀국

\* 무어(S.M. Moore 모세득) :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 1924년 내한, Methodist Rural Center를 건립하여 지방 농촌 사업을 전개

이상과 같이 WFMS 관련 원주에서 선교 활동을 펼친 여 선교사를 살펴보았다.

## IV. 맺음글

20세기는 서구 열강이 그들의 우월한 무기를 앞세워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였다.

식민지의 무력 침탈에 앞서 복음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 왔으며, 식민지에 대한 수탈과 억압을 체험했던 제3세계 국가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을 서구 식민주의적인 확장의 앞잡이거나 혹은 싸잡아 아예 이들 모두 한 통속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서구의 식민지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일본에 강점 당했던 암울하고 억압받았던 시절 한국사회는 기독교 선교사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 민족의 독립과 자결권, 민주주의 개념 등 근대화의 가장 필

수적인 요소들을 배워왔으며, 한국의 근대화와 의식의 계몽을 위해 기독교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중 의료 선교는 한국 선교 활동에서 부차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 선교의 역사는 의료 선교와 함께 시작되었다. 의료 선교는 원주 땅을 열었고 지금도 그 씨를 뿌리고 있다.

씨앗의 주인공인 아펜젤러와 존스 선교사의 방문에 이어 무스 선교사의 복음 전파로 시작된 원주읍교회는 앤더슨 의료선교사의 헌신과 서미감병원의 의료 활동으로 선교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다. 서미감병원과 그로 인한 많은 선교사들의 활동 의의는 기독교 정신을 기반한 사랑과 헌신적인 봉사를 원주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기독교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의료 사역은 한국의 복음화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리스도 복음이 놀랄 정도로 성공적으로 전파되었으므로 의료 사역의 역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새로운 의료 사역의 시작은 기독교 정신 함양 및 교회 건립에 도움이 되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마른 자에게 차가운 생수 한 컵을 베푸는 것이 복음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쏟은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행해졌고, 생명과 금전 투자는 합당한 가치가 분명히 있었다고 믿는다. 감리회선교부는 미국 및 해외 의료 사역에 큰 관심을 두었으며,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의료 사역자와 함께 하였다. 선교사의 든든한 지원에 의해 선교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의료 사역에 사용되었다. 아쉬운 점은 더 많은 자금 및 일꾼을 지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의료 사역의 유용성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퇴색되지 않은 섬김에 있다. 그러한 선교사들의 섬김을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이 선교사진 화보집에 담아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이다.



총괄	김성찬 원주시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이진만 선교사
기획	김나영 원주시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성복 원주기독교연합회 총무
자료협조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아펜젤러기념사업회 원주시역사박물관 원주문화원 원주제일감리교회, 문막감리교회, 만종감리교회, 원주제일성결교회 연세원주의대 일산사료전시관 Esther Foundation U.S.A GCAH Digital Galleries, U.M.C
논고 및 해제	안성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명예교수(일산사료전시관 관장) 윤종원 장로(원주중앙성결교회) 이진만 선교사
자문위원	원주시역사박물관장, 원주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유준호 목사, 정준태 목사, 최현영 목사
편집위원	김나영, 김성찬, 안성구, 윤종원, 이용희, 이진만, 조성복
행정지원	원주시역사박물관 원주시기독교연합회